

2026 호주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9
3. 주요 이슈 Pick	11
가. 'Future Made in Australia' 전략	11
나. 다문화 사회 심화와 새로운 소비시장 형성	12
다. 무역 다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교역 변화	13
라. 글로벌 협력 확대와 국가 방위 강화	14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7
가. 시장 특징	17
나. 무역	22
다. 산업	33
라. 투자	37
2. 유망 산업	44
가. 에너지(전력)	44
나. 첨단(기술혁신)	47
다. 소비재(뷰티)	49
3. 협력 기회	53
가. 통상·G2G	53
나. 프로젝트 I – 전력인프라	56
다. 프로젝트 II – 방산, 건설	60
라. 공급망(자원개발)	61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66
2. 진출전략	6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79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83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86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87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8 |
| 3. 주요 이슈 Pick | 11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 2026년 호주 경제는 2025년 대비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
 - 2024년 호주 경제는 고금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점차 회복 국면에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호주 경제가 2025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수치를 상향 조정
 - * IMF는 호주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2025년 1.8%에서 2026년 2.2%로 상향 조정
 - * OECD 역시 2025년 1.9%에서 2026년 2.2%로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

□ 내수 경기 회복 가능성 확대

- 2026년 호주 가계소비는 실질임금 상승, 고용 안정, 금리 인하 등 복합 요인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호주중앙은행(RBA)은 2025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하였으며, 물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상존
 - * 호주 중앙금리 : 4.4 → 4.1%(2월) → 3.9%(5월) → 3.6%(8월)
 - 2025년 7월 기준 실업률은 4.2%를 기록, 2026년까지 노동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이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과 함께 가처분소득 증가도 기대되고 있음
- 공공 및 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
 - 정부가 발표한 2025/26년 예산안은 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교통망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
 - * 호주 회계연도는 매년 7.1.부터 이듬해 6.30.까지임 (2025/26 예산은 '25.7.1.~'26.6.30.)
 - 특히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는 건설, 기계, 기술산업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 대외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

-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고, 철광석 및 석탄 등 주요 자원의 30~4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며, 호주의 자원 수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짐
-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호주의 무역 수지와 중기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25.5	25.6	25.8	26.3	26.9	27.4	27.6	28.1
명목 GDP	십억 달러	1,388.20	1,364.90	1,658.00	1,723.30	1,742.00	1,794.50	1,836.07	1,926.76
1인당 명목 GDP	달러	54,474	53,020	63,875	65,774	65,794	67,176	68,068	70,766
실질 성장률	%	1.8	-2.1	5.5	3.9	2.0	1.1	1.7	2.1
실업률	%	5.2	6.5	5.1	3.7	3.7	4.0	4.2	4.1
소비자물가 상승률	%	1.6	0.9	2.9	6.6	5.6	3.2	2.1	2.1
재정수지(GDP 대비)	%	-1.2	-11.5	-4.3	-1.7	-0.8	-2.7	-1.8	-1.7
총 수출	백만 달러	271,037	250,302	343,732	411,730	371,399	340,849	337,036	349,638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7,574	16,059	26,851	35,715	26,743	25,166	N/A	N/A
총 수입	백만 달러	213,750	203,188	247,720	289,046	274,808	283,541	276,852	290,614
(對韓 수입)	백만 달러	8,371	6,254	9,449	18,679	17,439	16,010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57,287	47,114	96,012	122,684	96,591	59,024	60,184	59,024
경상수지	백만 달러	-287.6	24,899	40,640	5,708	-4,995	-36,258	-22,610	-17,696
환율(연평균)	AU\$/US\$	0.7	0.69	0.75	0.69	0.67	0.67	0.65	0.65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8,898.8	7,816.2	6,927.6	124,350	13,559	14,814	42,451	47,405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38,745	15,842	27,804	68,678	33,132	54,188	30,350	37,969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5.8), Global Trade Atlas(2025.8), 호주 통계청

□ 호주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025년 성장률 둔화에서 2026년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기대
 - 2025년에는 고금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인플레이션 안정과 기준금리 인하,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026년에는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

호주 GDP 성장 동향 및 전망

기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장률(%)	-2.0	5.4	4.1	2.0	1.1	1.7	2.1	2.0

주: 2025~2027년은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5.8.)

- (소비) 2025년 호주 가계소비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
 -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비 지출이 높은 여름철 전력 수요와 요금할인 축소의 영향으로 큰 폭(10.2%) 상승
 - 차량구매, 스포츠, 문화행사 수요증가 등으로 선택 소비 항목도 점진적 회복세를 보임
 - 2026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실질 가치분소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는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 다만 주거비 및 공공요금과 같은 고물가 항목 부담은 일부 소비심리를 제약할 수 있음
- (민간투자) 민간투자는 2025년 상반기 0.7% 증가하여 GDP 성장에 0.1% 기여
 - 주택 및 종축 공사에 걸쳐 최근 승인 증가에 따라 주택 투자가 2.6% 증가
 - 비주택 건설 또한 광산 및 전력사업을 중심으로 1.3% 증가
 - 기계 및 장비 투자는 IT 장비 약세로 인해 1.7% 감소
- (산업생산) 호주의 2025년 1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
 - 산업생산 총 수입은 311억 호주달러(203억 달러) 감소, 이중 광업에서 424억 호주달러(276억 달러)가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
 - 농림수산업은 96억 호주달러(63억 달러), 제조업은 36억 호주달러(23억 달러) 감소
 - 반면, 임대·고용 및 부동산 서비스 부문은 65억 호주달러(42억 달러) 증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 또한 48억 호주달러(31억 달러) 증가
- (대외교역) 호주 교역 규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내림세로 전환
 - 2024년 교역액은 6,2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
 -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對호주 4위 교역국으로 교역액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412억 달러를 기록
 - 호주의 주요 5대 수출국 중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중국, 일본, 한국 수출이 모두 하락해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
- (투자유치) 2020년부 외국인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 2024년에 최고치 기록
 -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는 3,270억 호주달러(2,132억 달러) 증가해 4조 9,706억 호주달러(3조 2,409억 달러)에 달함
 - 주요 투자국별로는 미국이 약 1조 3,555억 호주달러(8,838억 달러)로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 전년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EU의 투자 규모는 약 8,693억 호주달러(5,668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영국은 약 8,391억 호주달러(5,4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

-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 규모는 각각 2,829억 호주달러(1,845억 달러)와 1,820억 호주달러(1,187억 달러)를 기록,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이 뒤를 이음
- 한국의 투자 규모는 284억 호주달러(185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투자진출) 2024년 호주의 해외 투자 진출 규모는 총 4,317억 호주달러(2,815억 달러) 기록, 전년 대비 12.9% 증가
 - 對미국 투자는 2024년 1,552억 호주달러(1,012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36%에 달함
 - 영국으로의 투자는 2024년 699억 호주달러(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반면 對EU 투자는 지속 성장세로 2024년 479억 호주달러(312억 달러)로 증가
 - 뉴질랜드로의 투자 규모는 2024년 205억 호주달러(134억 달러)에 달해 지난 4년간 투자액이 2배 가까이 증가,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 일본과 캐나다로의 투자규모는 165억 호주달러(108억 달러), 131억 호주달러(85억 달러)를 기록 하여 완만한 증가세, 아세안, 홍콩, 중국이 그 뒤를 이음
 - 한국으로의 투자는 296억 호주달러(193억 달러) 규모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호주 정치 구조

-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
 - 연방 정부 및 주 정부(6개 주, 2개 준주)로 구성되었으며, 연방 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하며 기타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
 - 호주 의회는 연방 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도입(퀸즐랜드주는 단원제), 하원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는 의원내각제
- * 호주 하원은 전체 의석 150석 중 절대 과반인 76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 절대 과반 미만의 경우 최다 의석 보유당과 무소속 정당 연정 하에 내각 구성 가능. 최다 의석 보유당 당수가 총리가 됨

호주 주요 정당 개요

명칭	노동당 (Labor Party)	자유당 (Liberal Party)	국민당 (The Nationals)	녹색당 (The Greens)
로고				
현 당대표				
보유 의석수	Anthony Albanese	Sussan Ley	David Littleproud	Larissa Waters
	94	34	9	1

자료: 호주 의회(Parliament of Australia), 2025년 8월 확인 기준

□ 호주 집권당 현황

- 현재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주도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 중
 - 2025년 5월 3일에 실시된 호주 연방 총선에서 노동당은 하원 150석 중 94석을 확보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

- 연방 총선 이후 노동당에 대한 선호도는 57%로 더욱 상승한 반면, 자유당과 국민당의 연합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최저 수준인 31.8%를 기록하며 총선 이후 더욱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The Australian(2025.7.20.))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호주 정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발표
 - 2022년 연례 기후 성명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목표를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 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하도록 법제화
 - 2023년 기후 대응 정책인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개정안’ 발표
 - * 연간 1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 시설에 적용되는 연간 탄소배출 한도 기준을 설정하여, 2030년까지 매년 4.9% 탄소배출 감축 목표
 - * 배출 상한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에 크레딧을 제공하여 향후 해당 기업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게끔 하였으며, 제도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
 - 용량 투자 계획(Capacity Investment Scheme, CIS)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지원
 - *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40GW의 추가발전 용량을 확보하여 전력 수요 증가 및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2030년까지 82% 재생 가능 전력 목표 달성을 기여
 - ‘신차 효율성 기준법 2024(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 Act 2024)’ 시행
 - * 2025년 1월 1일부터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적용,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가 설정되며 2030년 까지 승용차의 배출량을 60% 이상, 경상용차는 약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Critical Minerals Strategic Reserve)’ 도입

-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 도입
 - 2025년 7월 1일 시작하여 2026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이며, 초기투자 규모는 12억 호주달러 (8억 달러) 규모에 달함
 - 최대 희토류 공급국인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중국을 대체하여 희토류를 공급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 호주는 세계 4위의 희토류 생산국이며, 서호주주의 마운트웰드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
 - 전략적 비축을 위해 핵심광물을 매입하거나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하고, 비축된 광물을 국방,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적 분야와 주요 국제 파트너에 신속히 공급할 계획
 -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서도 국가 산업 기반과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ESG 환경 관련법 시행

- 정부 부처 및 주정부, 주요 산업에서의 ESG 실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 (농수산부)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 유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ESG 전략을 발표
 - * 정밀 관개로 수자원을 절약하고, 사료 효율 개선과 메탄 저감 기술 투자로 축산업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며, 재생에너지 활용과 농업 폐기물 자원화도 추진
 - (재무부) 2025년 1월부터 기후 관련 재무 공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거버넌스, 기후 전략 및 위험관리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도록 유도
 - (산업과학자원부) 광산 운영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저탄소 기술 도입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및 규제를 도입
 -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기술 적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광산 부문의 탈탄소화를 적극 유도
 - (환경부) 정부 조달 과정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세우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y, ESPP)’을 시행
 - * 2024년 7월 1일 750만 호주달러(489만 달러)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에 1단계 시행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가구, 비품 및 장비, 정보통신기술 제품, 섬유 분야에 2단계가 확대 적용

3. 주요 이슈 Pick

가. ‘Future Made in Australia’ 전략

□ 호주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산업 전략 시행

- 탄소중립으로 경제, 산업 경쟁력 및 국가 위상 강화
 - 제조·자원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국 내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Future Made in Australia’ 전략을 추진
 - 2024/25년 회계연도부터 향후 10년간 총 227억 호주달러(148억 달러)를 투자해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가공, 녹색 금속, 저탄소 연료, 배터리 및 태양광 제조, 양자 및 AI 등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

Future Made in Australia 주요 투자 내용

투자 분야	세부 내용	예산 규모
혁신 기술·시설	녹색 금속, 배터리, 저탄소 액체 연료 관련 혁신 기술 및 시설 조성	17억 호주달러(11억 달러)
재생수소 생산	2027/28년~2039/40년 재생수소 생산 시 1kg당 2달러의 세금 인센티브	67억 호주달러(44억 달러)
주요 광물 가공·정제	31개 주요 광물 가공·정제 비용 10% 인센티브 제공	70억 호주달러(46억 달러)
태양광·가정용 배터리	전력망 통합 지원	2,770만 호주달러(1,806만 달러)
농업 및 토지	탄소배출 감축 투자	6,380만 호주달러(4,160만 달러)
재생에너지 용량 확보	용량 투자 제도 확대	650억 호주달러(424억 달러)
양자컴퓨팅	퀀즈랜드 주정부 및 PsiQuantum과 협력해 양자컴퓨팅 역량 구축	4억 6,640만 호주달러 (3억 410만 달러)

자료: 호주 정부(Prime Minister of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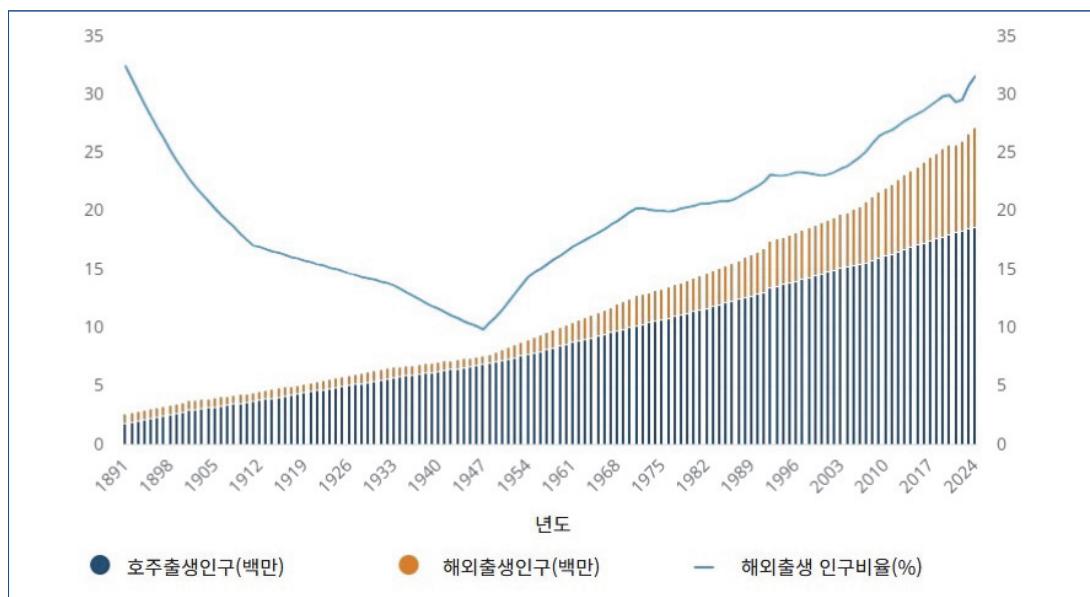
- 관련 산업과 한국 기업에의 영향
 - 호주의 ‘Future Made in Australia’ 전략에 따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태양광 모듈, 가정용 배터리, ESS, 수소 생산설비 등 제조와 설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리튬, 희토류, 알루미늄 등 전략 광물 가공, 녹색 철강 및 배터리 소재 생산, 재생수소 및 저탄소 연료 개발이 핵심 산업으로 지정되어, 관련 분야의 협력 및 투자 기회가 증가
 - * 광산·정련업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은 호주 내 민간 투자 매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
 - 양자컴퓨팅 및 AI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현지 R&D 센터 설립, 기술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솔루션 공급 등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

나. 다문화 사회 심화와 새로운 소비시장 형성

□ 호주의 다문화 사회 확산

- 이민자 유입 증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 호주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서, 최근 이민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이 2024년 기준 31.5%로 상승
 - 이민자의 문화·언어·소비패턴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식품·외식,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출생 국가별 거주 인구 증가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 중국, 필리핀, 네팔, 베트남 순, 아시아계 이민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확대

〈호주 인구 변화와 해외 출생 인구 변화 추이〉



자료: 호주 통계청(ABS)

- 다문화 확산에 따른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
 -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 스낵, 건강식품 등의 현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K-푸드 및 외식 시장의 확장이 기대
 -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브랜드 신뢰도와 현지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호주 시장 진출 시, 최근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개발, 포장, 공급망 관리, 마케팅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

다. 무역 다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교역 변화

□ 호주의 무역 다변화 현황

- 중국과의 교역 및 전략적 변화
 -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나, 지정학적 긴장과 정치·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호주는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전략을 추진 중
 - * 2024년, 중국과의 교역액은 총 1,905억 호주달러(1,242억 달러)로 호주 총교역액의 30.5% 차지
 - 호주는 한국, 일본, 인도, 아세안, 유럽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목표
 - * 2024년 기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아세안 국가는 호주의 상위 10대 무역 파트너에 포함, 이들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액은 총 760억 호주달러(496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2%를 차지
- 미국과의 교역 및 관세 관련 이슈
 -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교역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산업에서 관세 조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교역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음
 - * 2024년 기준, 미국과의 교역액은 총 490억 호주달러(319억 달러)로 전체 호주 교역액의 7.9%를 차지, 교역국 순위에서 3위에 해당
 - * 미국은 호주의 철강과 알루미늄, 일부 구리 함유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 의약품에는 최대 200% 관세 부과
 - 이러한 상황은 호주로 하여금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호주-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 2025년 10월 1일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알루미나, 냉동육류, 유지 종자 등을 포함한 호주의 對UAE 수출품 중 99%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
 - UAE는 호주 수출기업에게 중동 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파트너로, 호주에게는 중동지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보유
 - * 2024년 기준 양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규모는 123억 호주달러(79억 8,6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상호투자 규모 역시 237억 호주달러(153억 8,800만 달러)에 달함
 - 이번 호주-UAE CEPA로, 호주의 對UAE 수출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 일부 품목들은 3단계 또는 5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폭넓은 시장 접근이 보장
 - * 외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협정 발효로 인해 호주의 연간 상품 수출은 약 6억 7,800만 호주달러(4억 4,021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번 협정은 호주의 무역 다변화와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광물·인프라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예고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

- 한국 기업 관련 기회 요인
 - 호주의 무역 다변화 전략 속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아시아 공급국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 2024년 기준, 한국과의 교역액은 총 412억 호주달러(269억 달러)로 전체 호주 교역액의 6.6%를 차지, 교역국 순위에서 4위에 해당
 - 전통적 중국·미국 중심의 교역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에너지, 첨단소재, K-푸드, IT·전자 제품 등 호주에서 전략적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됨

라. 글로벌 협력 확대와 국가 방위 강화

□ 호주-미국, 방위 및 중요자원 공급망 안보 협정 수립

- 호주-미국, 핵심광물 및 희토류 협력 협정 체결
 - 2025년 10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버니지 호주 총리는 백악관 정상 회의에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협력 협정을 공식 체결
 - 이 협정은 양국의 방위산업과 상업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 양국은 향후 6개월 동안 두 국가의 상업 및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8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이번 호주-미국 협정은 양국의 방위 및 상업 산업 필수 자원 공급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

□ 호주 국방력 강화 전략

- 오커스(AUKUS) 동맹 강화
 - 오커스(호주-영국-미국 안보협정)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첨단 방위 기술과 핵심 역량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2021년 체결된 3국 안보 동맹
 - 2025년 7월 25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호주-영국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오커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50년 조약에 서명
 - * 미국 내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호주는 협정 지속과 확대 의지를 명확히 표명

〈2025년 7월 호주-영국 장관 협의에 관한 공동 성명(AUKMIN)〉



자료: 호주 외교부(DFAA)

- 2025/26년 예산에서 호주 국방비 예산 증액
 - 호주의 2025/26년 국방예산은 589억 8,870만 호주달러(384억 6,093만 달러)로,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1%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를 차지
* 2024/25년 국방예산은 GDP의 2%
 - 호주 정부는 203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3%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정부의 장기 전략 및 한국 기업 시사점
 - 호주는 장기적인 국방 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국방예산 증가와 첨단기술 투자 기조를 유지
 -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국방 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첨단 무기, 국방 정보통신기술, 무인기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호주의 국방 물자 현지 조달 정책과 국방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및 기술 이전 모델 개발을 통한 시장 진입 전략 수립이 중요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7
2. 유망 산업	44
3. 협력 기회	53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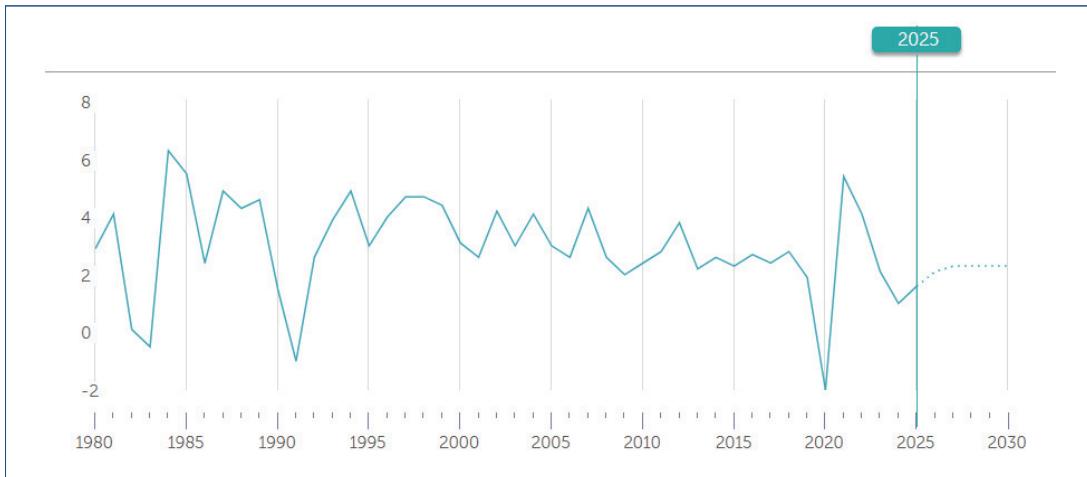
- 세계 13위 경제 대국으로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 보이며 선진국 중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
- 재생에너지·핵심 광물·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환과 대규모 투자가 가속화
- 아시아·태평양 교역 확대를 통해 지역 시장 접근성과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

가. 시장 특징

□ 세계 경제의 1.6%를 점유하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

- 팬데믹을 제외하고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경험
 - 2024년 기준 호주의 명목 GDP는 세계 경제 1.7%인 1조 9,450억 달러(EIU 8.27.)
 - 팬데믹 이후 빠른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2020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 전환
- 여타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전망
 - IMF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은 3.1%로 예상되며, 선진국*은 1.6%로 전망인데 반해 호주의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 미국, 유로 지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영국, 캐나다 포함 기타 선진 경제국
 - 호주의 2026년 GDP 성장은 2.2%(IMF, 8.27.)로 예상, 이는 선진 유럽 국가(영국 1.4%, 프랑스 1.0%, 독일 0.9%) 및 북미(미국 2.0%, 캐나다 1.9%) 지역 대비 높은 수준

〈호주의 연간 GDP 성장률(1980~2030년)〉



자료: IMF(2025.8.27.)

□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에서의 경쟁우위 강화

- 친환경 전환 중심의 산업 육성 기조 본격화
 - 호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3% 감축하고, 전체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수립
 - 2025년 5월 3일 실시된 호주 연방 총선에서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가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2025년 3월 발표된 2025/26년 호주 연방 예산안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이 지속 추진될 전망
 -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첨단 제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2050년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에너지·기후 분야 및 관련 산업은 향후도 국가 차원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
- 재생에너지 투자 및 인프라 확충 가속화
 - 호주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송전망 강화, ESS 확대, 수소 인프라 구축 투자 가속화
 -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전력 생산의 82%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대규모 발전소 신규 투자와 대용량 배터리 시장의 동반 성장 전망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약정은 2023년 약 15억 호주달러(8억 달러)에서 2024년 약 90억 호주달러(59억 달러)로 급증, 2018년 이후 최대치 기록

□ 온라인 구매 및 지속 가능한 제품 소비 성향 확대

-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한 호주 이커머스(e-commerce) 시장
 - 온라인 소비시장 규모는 2024년 690억 호주달러(450억 달러) 규모로 2023년 대비 12% 증가
 - 밀레니얼 세대(36.1%)와 X세대(27.9%)가 전체 온라인 소비의 60% 이상 차지, Z세대는 119억 호주달러(78억 달러)로 17.3% 점유, 베이비붐 세대는 101억 호주달러(66억 달러) 소비 및 17.6% 성장을 기록
 -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 주요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플랫폼별 특성과 소비자 성향에 맞춘 전략의 중요성이 확대
 - 넓은 토지면적 대비 물류거점 확보가 어려웠던 호주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배송 체계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됨
 - 빠르고 정확한 배송, 간편한 반품 절차 등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커머스의 확대에 기여
 - * 호주 아마존은 2024년부터 당일 배송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현지 주요 마트체인(콜스, 울워스) 역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 ESG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로 순환 경제 및 지속 가능 소비 증대
 - 호주 모나쉬 경영학교(Monash Business School) 연구에 따르면, 46%의 소비자가 쇼핑 시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특히 Z세대는 윤리적 생산 및 재활용 포장 여부 등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 호주 소비자들은 주로 제품이나 포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며, 62%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 59%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한다는 연구결과 존재
 -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시장 위축은 중고 및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순환 경제 확대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 요인
 - 경기둔화로 인한 생활비 압박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eBay, Amazon 등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미사용 및 중고 제품을 거래
 - IBIS World에 따르면, 2024년 호주 앤틱 및 중고품 시장 규모는 41억 호주달러(27억 달러)로, 2030년까지 47억 호주달러(3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에 맞춰, Country Road, Oroton 등 호주 현지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중고 제품 재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순환 경제에 기여

□ 호주 주요 인증 정보

-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 호주 산업 화학물질 도입 관리제도(이하 'AICIS')는 2019년 도입된 상업적 목적으로 호주 내 제조 되거나 수입되는 농업용, 의료용, 식용을 제외한 산업용 용도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규제

- 호주에 도입 이력이 없는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심사 또는 자료 제출이 요구되므로 초기 수입 전 AICIS 인벤토리를 통한 사전 검토가 필수
- 화장품의 경우 완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은 요구되지 않으며, 제품에 포함된 각 성분의 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
 - * 예를 들어, 하나의 화장품 제품이 10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10개 성분 각각이 AICIS 기준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 호주 화장품 수입 절차 요약

- (성분 확인) CAS 번호로 AICIS 인벤토리에서 확인, CAS 번호가 없는 경우 대체 검색 절차 활용
- (성분 분류 기준) AICIS는 '면제(exempted)', '필수 신고(reported)', '평가 대상(assessed)'으로 성분 분류
 - 면제 성분 : 사전 신고 없이 수입 가능
 - 필수 신고 성분 : 사전보고서(Pre-Introduction Report) 제출 필요
 - 평가 대상 성분 : AICIS에 평가증명서(Assessment Certificate) 신청 및 승인 필요
- (특허 성분) AICIS 인벤토리 미등재 경우, AICIS를 통한 자체 분류 절차 및 리스크 평가 필요
- (신물질 판단 기준) 인체 위해성 및 환경 영향도에 따라 단순 신고 또는 심사 대상 여부 결정

-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인증
 - 호주 연방의료제품청(이하 TGA)은 의료기기의 공급, 수입, 수출, 제조 및 광고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모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호주 의약품등록부(ARTG: 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시판 전 적합성 평가, 시판 후 모니터링 및 표준 집행, 제조업체 라이센스 발급을 통해 의료기기를 감독 및 규제함
- FSANZ 식품 인증(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 FSANZ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식품 표준 및 식품 라벨링에 대한 규제를 설정
 - FSANZ는 식품 기준법(Food Standards Code)에 식품 표시 기준을 명시, 이 기준은 호주의 각 주와 준주에서 시행하며, 뉴질랜드에서는 1차 산업부(MPI)에서 수행
 - 당 관은 식품의 안전성, 품질, 제조 공정, 첨가물 등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여 호주 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
 - FSANZ 규정에 따라 식품 라벨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강조하여 표시하도록 요구
 - * 필수 정보: 식품 명칭 및 설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유발 성분, 영양 정보, 유통기한 또는 소비 기한, 보관 방법, 원산지,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정보, 알레르기 경고 문구, 주요 특성(선택사항)

- DAFF 식품 검역 및 인증(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 DAFF는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검역과 안전성 확인을 담당하며 수입된 식품에 대해 검역절차를 시행하고 검역 인증서를 발급, 이를 통해 식품이 호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
 - 수입된 식품은 DAFF의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호주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검역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DAFF는 수입 식품 안전성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2025년 6월 16일부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 안전 요구사항이 BICON 시스템에 통합되어, 수입자는 BICON을 통해 안전 요구사항을 검색 및 확인 가능
-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MEPS)은 1986년 도입된 제도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전기·가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기준
 - 에너지 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관리 등의 목적 아래 시행되며, 관련 제품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판매 전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 경제 강국과 뛰어난 접근성

- 인도, 중국 및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의 번영과 호주에의 기회 확대
 - 호주의 국제 무역 가치는 2023/24 회계연도 기준 GDP의 48%에 달하며, 주요 수출 파트너인 동남·동북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은 호주 무역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 아세안은 호주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2023/24 회계연도 기준 양방향 교역 규모가 1,929억 호주달러(1,258억 달러)에 달해 일본, 미국, EU와의 교역을 상회
 - 아·태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 적은 시차,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확보된 다국어 인력은 호주가 아·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 3국과의 교역 집중과 시장 확대
 - 호주는 아시아에 가장 가까운 영미권 선진국으로,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3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편
 - 2024년 기준, 중국(1위, 5.7%), 일본(3위, 5.9%), 한국(4위, 5.7%)이 호주 수출 상위 국가에 포함, 이들 국가와의 교역은 자원·에너지뿐 아니라 소비재 분야까지 확대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2025년 5월(누계) 호주의 수출은 1,3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 하락
 - 글로벌 경기둔화와 공급 과잉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024년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8.3% 감소한 3,408억 달러 기록, 이러한 수출 하락세는 2025년 5월까지 지속
 - * 호주 산업부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광석과 액화 천연가스의 수출이 2027년까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입) 2025년 5월(누계) 호주의 수입은 1,14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
 - 2023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수입이 소폭 감소한 한편, 2024년에는 경기 회복세와 소비자 신뢰도 회복에 힘입어 수입 규모가 소폭 상승
 - *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변화 및 무역장벽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입 규모는 소폭 하락할 전망

호주의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371	-10.0	341	-8.2	133	-6.3
역외수입	275	-4.9	284	3.2	115	-1.6
무역수지	97	-21.8	57	-40.7	18	-27.8
총 교역	646	-7.9	624	-3.4	248	-4.2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8.7.)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2025년 5월 기준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으로 상위 4개국의 전체 수출의 62% 가량을 차지
 - 상위 10개 수출 대상국 중 미국,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대한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

* 호주의 對미국 수출 증가(126.9%)는 금 수출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와 뉴욕 시장의 가격 프리미엄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에 따른 결과

호주의 상위 수출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24년		2025년 5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중국	117,786	-12.8	43,975	-14.3
2	일본	46,492	-18.6	15,961	-17.5
3	미국	15,657	13.0	13,129	126.9
4	한국	25,156	-5.9	10,145	-6.9
5	인도	16,409	-1.7	4,721	-16.7
6	대만	12,220	-16.2	4,008	-24.6
7	싱가포르	12,153	6.8	3,833	-22.7
8	인도네시아	8,374	7.8	3,260	0.3
9	뉴질랜드	8,256	-0.3	3,152	-2.7
10	홍콩	7,798	20.4	2,931	-34.4

주: 순위는 2025년 5월 기준, 증감률은 2024년 전년 대비 / 2025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8.7.)

- (수출 품목) 2025년 5월 기준 호주 최대 수출 품목은 광물성 연료 및 광물
 - 호주는 풍부한 핵심광물 매장국으로 세계적인 생산량을 자랑하며 상위 수출 품목은 철광석, LNG, 석탄, 금, 구리 등
 - * 주요 광물의 전세계 대비 호주 매장량은 철광석(28%), 보크사이트(27%), 니켈(24%), 리튬(19%), 우라늄(28%)
 -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세 기록
 -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금 가격 상승으로 귀금속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7% 상승
 - * 전 세계적인 금 가격 상승과 수요 확대에 힘입어 호주의 금 수출액이 크게 증가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가운데, 호주가 희토류 공급 대체선으로 부각되며 해당 품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2% 확대
 - * 지정학적 리스크를 배경으로 한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 호주의 희토류 가공 역량 강화,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결합되어 2025년 호주의 무기·화학류 및 희토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호주의 상위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4년		2025년 5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광물성 연료	112,619	-13.6	37,417	-22.7
2	광물	95,814	-7.8	36,806	-11.3
3	귀금속류	25,621	19.9	15,494	53.7
4	육류	13,943	19.2	6,302	24.1
5	곡류	8,224	-36.4	4,473	3.4
6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7,492	19.7	3,552	43.2
7	원자로·보일러·기계류	5,564	5.9	2,212	2.0
8	유종	3,978	-11.1	2,063	14.0
9	알루미늄 제품	4,681	9.6	1,989	12.5
10	구리 제품	4,341	6.2	1,816	0.7

주: 순위는 2025년 5월 기준, 증감률은 2024년 전년 대비 / 2025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8.7.)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2025년 5월 기준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으로 상위 4개국이 전체 수입의 48% 가량을 차지
 - 호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25년 5월까지 전체 수입의 26% 이상을 차지, 2위인 미국은 중국의 절반 이하 수준인 약 12%를 기록
 - * 상위 10개국 중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반 감소, 이는 글로벌 무역 불안정으로 인한 교역 둔화와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

호주의 상위 수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24년		2025년 5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중국	72,764	4.9	29,916	1.3
2	미국	33,391	8.3	13,574	3.2
3	일본	16,628	-4.3	6,119	-7.9
4	한국	16,010	-8.2	5,200	-29.5
5	태국	13,323	4.0	4,864	-15.6
6	말레이시아	11,374	-8.0	4,773	9.7
7	독일	12,150	1.4	4,376	-12.7
8	싱가포르	9,926	-7.7	4,216	-2.4
9	인도	7,549	25.6	3,484	31.4
10	베트남	7,787	20.0	3,089	0.3

주: 순위는 2025년 5월 기준, 증감률은 2024년 전년 대비 / 2025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8.7.)

- (수입 품목) 2025년 5월 기준 주요 수입 품목은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등으로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
 - 호주의 귀금속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4.7% 급증하였고, 상위 10대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상대적 안전 자산에 대한 국가 수요 반영
 - * 특히 호주 내 금융기관과 투자들이 현물 금·은 구매를 확대하여 수입 수요를 견인
 - 광물성 연료는 2022년부 수입액의 지속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호주의 공급 다변화 전략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등에 기인

호주의 상위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24년		2025년 5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원자로·보일러·기계류	40,796	5.4	16,243	-2.9
2	자동차 및 부품	42,566	-1.0	16,203	-10.6
3	광물성 연료	37,403	-7.0	13,861	-15.4
4	전기·전자기기	31,326	8.3	12,324	2.0
5	귀금속류	8,951	3.3	5,414	64.7
6	의약품	10,907	-1.7	4,637	1.7
7	광학·영상·의료기기	10,054	2.4	4,030	-1.1
8	플라스틱류	7,231	7.3	2,858	-3.3
9	철·철강제품	6,789	13.9	2,673	-12.1
10	가구류	5,148	7.5	2,002	-1.5

주: 순위는 2025년 5월 기준, 증감률은 2024년 전년 대비 / 2025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8.7)

□ 對한국 교역 동향

- (교역) 최근 한-호 교역 규모는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양상
 - 2024년 한-호 교역액은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
 - 2025년에는 상반기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7%가량 감소한 215억 달러 기록
 - 에너지·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2026년 이후 교역 회복이 기대되나, 무역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작용

한국의 對호주 무역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17,791	-5.1	15,598	-12.3	6,451	-20.9
수입	32,823	-26.9	29,955	-8.7	15,072	-3.8
무역수지	-15,032	-42.6	-14,357	-4.5	-8,621	14.8
총 교역	50,614	-20.5	45,553	-10.0	21,523	-9.7

주: 증감률은 2024년 전년 대비 / 2025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8.7.)

- 2025년 상반기 對호주 교역은 수출(-21.2%)과 수입(-3.8%) 모두 감소하였으며,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수출) 2025년 상반기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
 - * 경유·휘발유·제트유 등 정제유 수출 감소와 자동차 부품 및 주요 공산품 수요 둔화가 겹치며 수출 감소에 영향
 - (수입) 2025년 상반기 한국의 對호주 수입은 1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 * 철광석, 유연탄 등 주요 원자재 단가 하락과 수요 조정에 따른 수입액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무역수지) 2024년 무역수지 144억 달러 적자, 2025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87억 달러 적자 기록
 - * 2025년에는 對호주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1%, 3.8% 가량 감소
- 한국은 호주로부터 자원·에너지 원자재를 수입하고 호주에 우리나라가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
 - (수출) 2024년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주요 3대 수출 품목(경유, 승용차, 휘발유)은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기타 자동차·전기자동차·화물자동차 등은 소폭 증가

한국의 대호주 10대 수출 품목 동향

2024년				2025년 6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15,598	-12.3		총 수출	6,428	-21.2
1	경유	5,715	-15.8	1	경유	2,138	-33.2
2	승용차	2,341	-17.6	2	승용차	872	-31.6
3	휘발유	1,474	-9.0	3	휘발유	573	-22.2
4	제트유및등유	1,365	-26.0	4	기타자동차	448	58.2
5	기타자동차	721	466.1	5	제트유및등유	262	-63.1
6	축전지	216	21.7	6	선박	167	0.0
7	철도차량	162	-10.4	7	전기자동차	127	7.8
8	합성수지	159	23.0	8	화물자동차	120	8.6
9	전기자동차	143	-59.0	9	알루미늄조가공품	87	44.2
10	화물자동차	139	-11.5	10	축전지	83	-26.3

주: 증감률은 2024년 전년 대비 / 2025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8.7.)

- (수입) 철광·유연탄 등 글로벌 자원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선박 제품은 대형 수주에 따른 큰 폭의 수입액 상승

한국의 대호주 10대 수입 품목 동향

2024년				2025년 6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29,955	-8.7		총 수입	15,073	-3.8
1	천연가스	7,158	-19.6	1	천연가스	4,293	14.4
2	유연탄	5,698	-20.7	2	철광	2,355	-20.3
3	철광	5,497	0.2	3	유연탄	1,995	-36.1
4	원유	2,167	6.8	4	가축육류	995	13.5
5	가축육류	1,669	1.8	5	원유	967	3.2
6	금	1,227	143.8	6	금	878	52.1
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128	17.8	7	기타금속광물	577	30.7
8	기타금속광물	925	63.0	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562	-8.1
9	동광	601	-38.6	9	동광	486	29.4
10	곡류	461	-6.9	10	선박	329	595,735.2

주: 증감률은 2024년 전년 대비 / 2025년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8.7.)

- 2025년 1~5월 기준, 한국은 호주의 4위 수입국
 - 호주의 전반 수입 규모가 감소하며 對한국 수입 규모도 30% 가량 위축,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가량 소폭 하락
 - *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인 광물성 연료, 자동차, 전자기기 등 대부분 상위 품목 수입 규모가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반 수입 규모 감소에 크게 영향
 -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전기차가 호주 시장에 빠르게 유입, 이로 인해 자동차 시장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며 기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던 한국산 자동차는 비교적 약세 양상
- 2025년 1~5월 기준, 한국은 호주의 4위 수출국
 - 호주의 전반 수출 규모 감소와 함께 對한국 수출 규모 역시 7.7% 위축,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동소이
 - * 일부 자원 수출 감소로 전반 규모가 위축 양상을 보이는 한편, 육류, 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강세 유지 중이며 특히, 니켈 가루 및 플레이크의 수출 개시로 동 품목 수출액은 큰 폭 증가
 - 호주는 한국에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쇠고기, 니켈 등 배터리 원료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에너지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철강·정유·배터리·식품 산업과 직접 맞물려 꾸준한 수요를 형성

2025년 1~5월 호주의 주요 교역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순위	국가	수출액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29,916	26.1	1	중국	43,975	33.1
2	미국	13,574	11.9	2	일본	15,961	12.0
3	일본	6,119	5.3	3	미국	13,129	9.9
4	한국	5,200	4.5	4	한국	10,145	7.6
5	태국	4,864	4.2	5	인도	4,721	3.6
6	말레이시아	4,773	4.2	6	대만	4,008	3.0
7	독일	4,376	3.8	7	싱가포르	3,833	2.9
8	싱가포르	4,216	3.7	8	인도네시아	3,260	2.5
9	인도	3,484	3.0	9	뉴질랜드	3,152	2.4
10	베트남	3,089	2.7	10	홍콩	2,931	2.2

주: 순위는 2025년 5월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8.7.)

□ 호주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호주 진출 전략 : 한국 화장품 기업 D사(현지 H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두피를 스킨케어의 시작점으로 본다는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단순 샴푸·헤어케어가 아닌 스칼프케어 전문 브랜드로 차별화
 - EWG 그린등급의 고기능성 천연원료를 사용하고, 저가 원료를 배제며 두피·모발 건강 개선 효과를 강화하여 전문판매점 공략
 - 글로벌 트렌드인 클린뷰티(비건·무첨가·친환경·Non-GMO)를 충실히 반영하여, 웰빙·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호주 소비자 수요와 부합
- 필수 인증
 - 특허·인증 : KC 인체적용 시험 결과 및 기능성 특허 다수 보유,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 글로벌 기준 준수 : IFRA(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가이드라인과 메이저 클린리스트를 준수하여 안전한 향료 사용, ISO 인증을 받은 제조사와 협력해 글로벌 품질관리 기준 충족
 - 클린뷰티 : 비건(Vegan), 동물실험 금지(Cruelty Free), 설페이트·파라벤·MIT/CMIT·인공색소·미네랄오일 프리 등 무첨가(clean label) 기준 충족
- 성약 소요기간 : 2024년 10월에 개최된 국내 뷰티 전시회에서 상담한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2025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Beauty Expo Australia 공동 부스 참가 및 15만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 체결로 이어짐
- 바이어 발굴경로
 - 국내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에 바이어를 유치, 국내기업과의 상담 매칭 지원
 - 독점계약 체결을 위해 후속 상담회에 바이어 초대 및 협력 강화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호주 뷰티 시장은 최근 웰니스·셀프케어·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제품 콘셉트와 현지 시장 트렌드가 부합하였음
 -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현지 파트너사와의 공동 전시·마케팅 협력으로 이어진 점은 진출 방식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임
 - 국내기업은 이러한 협력 모델을 참고하여, 단순 거래 관계를 넘어 공동 마케팅, 현지 맞춤 서비스 지원까지 함께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하면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성공 사례로 보는 호주 진출 전략 : 한국 식품기업 H사(호주 S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국내기업이 개발한 두부면은 밀가루 대신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저탄수·고단백의 면류로 글루텐 프리와 다이어트 식단에 최적화된 제품
 - 비건 및 채식 식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선호도가 높으며,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하는 호주 소비자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짐
 - 최근 8월 호주 아마존 Noodle 품목 #1 Best Seller로 선정되기도 함

- 필수 인증
 - FSANZ 식품 성분 및 표시 규정 충족, 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Gluten-Free 및 Vegan 인증으로 주요 소비층 신뢰 강화
 - 현지 대형유통망 식품 안전 규제를 충족하는 동시에 호주 시장 유통을 위한 제품 포장/레이블 규격 충족
- 성약 소요기간 : 약 3~4개월의 기간을 통해 바이어와의 첫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호주 아마존 입점까지 약 6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국내 수출상담회에 바이어를 유치, 국내기업과의 상담 매칭 지원
 - 바이어는 첫 거래를 통해 우선 호주 아시안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무역관의 지원으로 호주 아마존과 연결되어 추가 입점까지 성사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호주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다이어트·비건·글루텐 프리 수요와의 정확한 매칭
 - 현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독창적 제품이라는 점에서 희소성과 차별성 확보
 - 영양가가 높은 두부 기반 식품으로, 일반 라면이나 파스타보다 건강한 제품임을 강조
 -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온라인 배송·유통이 용이 →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에 유리
 - 호주 유명 인플루언서의 컨텐츠 간접 노출로 인해 입소문 확산과 초기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제고에 큰 역할



성공 사례로 보는 호주 진출 전략 : 특수 전선 기업 Y사(현지 T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Y사가 생산하는 전선은 범용 제품이 아니라 수요처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특수 전선으로, 특정 산업군에 틈새시장을 보유
 -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발 거래가 아니라, 한 번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음
 - 글로벌 트렌드인 클린뷰티(비건·무첨가·친환경·Non-GMO)를 충실히 반영하여, 웰빙·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호주 소비자 수요와 부합
- 필수 인증
 -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강제 인증은 요구되지 않으며, 제품 사양서를 통해 품질과 규격을 증명
 - 다만 방폭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수 케이블의 경우, 호주·뉴질랜드 표준(AS/NZS) 인증이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지사화 사업을 통해 약 2~3개월 만에 첫 유효 바이어인 유통업체를 발굴하였으며, 제품 단가 확인 후 곧바로 계약으로 이어짐
 - 계약 이후 현지 입고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어, 상담 개시 후 총 6개월 만에 수출이 완료
- 바이어 발굴경로
 - 지사화 담당자가 사전에 메일로 접촉한 바이어 명단을 토대로, 업체 담당자와 협력하여 유망 바이어를 선별

- 지사화 담당자가 선정된 바이어 중 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소개하였고, 바이어는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알려줘서 고맙다며 다음 날 곧바로 가격을 요청
- 가격 제안 이후 단 일주일 만에 발주가 이루어지는 등 빠른 성약으로 연결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단순히 무작정 바이어를 접촉하기보다, 제품 전문가인 고객사의 조언과 무역관의 현지정보를 결합하여 유망 바이어를 선별하여 공략한 것이 주효하였음
 - 1차적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바이어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전달 한 것이 성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 이는 무분별한 방문보다는 체계적 전략과 현지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 주요 경쟁국 동향

- 호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수입 시장 내 25%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근소한 차이로 순위를 다투는 양상
 - 중국은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공산품을 포함하여 호주의 수입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한국은 2022년 6.5%에서 2025년 5월 누계 기준 4.5%로 점유율이 하락하며 경쟁국 대비 입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

호주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 점유율 추이

국가명	(단위: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누계
중국	26.7	25.2	25.7	26.1
미국	10.1	11.2	11.8	11.9
일본	5.9	6.3	5.9	5.3
한국	6.5	6.4	5.7	4.5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8.7.)

- (중국) 2024년 기준, 호주의 對중국 수입은 7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 2025년 5월 누적 기준, 3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 2025년 5월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기기,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자동차 등이며, 이어 가구·의류 등 생활필수품도 다수를 차지
 - 2025년 5월 기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중 눈에 띄는 증가나 감소 품목은 없으며, 대부분의 상위 품목은 ±30% 범위 내에서 변동 양상
- * 광물성 연료가 약 28% 하락한 점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로 평가되며, 이는 호주가 지속적으로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

- (미국) 2024년 기준, 호주의 對미국 수입은 3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 2025년 5월 누적 기준, 1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전자기기,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외도 광학 및 사진용 측정 장비, 의약품, 항공기 및 우주선과 부분품 등을 수입
 - 2025년 5월 누계 기준, 호주의 對미국 무기 및 탄약 수입이 약 288% 증가하였으며, 이는 3국 군사 동맹 오커스(AUKUS) 협력 기반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와 국내 방산 생산 역량 확대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
- * 오커스(AUKUS) : 2021년 9월 발표된 미, 영, 호 안보 동맹
- (일본) 2024년 기준, 호주의 對일본 수입은 1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감소, 2025년 5월 누적 기준, 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
 - 호주는 일본으로부터 주로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물성 연료, 고무, 전자기기 등을 다수 수입
 - 특히 2025년 5월 기준 對일본 의약품 수입은 약 45%, 기타 화학제품 수입은 약 66% 큰 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

□ 호주의 대외 수입 규제

- 2025년 7월 기준, 호주는 총 16개 국가에 51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총 2개국에 9건의 상계관세 부과
 - 반덤핑 관세는 중국 16건, 말레이시아 7건, 한국 6건, 대만 5건, 베트남 3건 및 기타 지역 순이며 상계관세는 중국과 인도에 각각 8건과 1건씩 부가 중
 - 호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제품, 화학제품, 전자 기기, 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시행
 -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 반덤핑세를 부과하여 해당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호주 내 산업 보호에 기여
- 호주와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 9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이지만, 한국산 철강 및 금속 제품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
 - 부과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 정밀강관, 철근, 열연 철강 구조물, 아연도금 강판, 구조용 강관 등
 - 한편, 2025년 8월 6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한국산 철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 조사에 착수
- * 호주 반덤핑위는 한국과 스페인산 철근에 2015년 11월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2020년 11월 1차례 연장해 2025.11.19.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예정이었으나, 호주 철근 제조사 InfraBuild의 요청으로 조사 개시

호주의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연번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최종판정결과 (부과기간)
1	철강/금속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 (Aluminium zinc coated steel, ≥600mm)	7210.61.00 7225.99.00	반덤핑	2021.12.24.~ 2026.12.24.
2	철강/금속	정밀강관 (Precision pipe and tube steel)	7306.30/50/61/69	반덤핑	2021.9.28.~ 2026.9.28.
3	철강/금속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7213.10.00 7214.20.00 7227.90.10/90 7228.30.10/90 7228.60.10	반덤핑	2015.11.19.~ 2025.11.19.
4	철강/금속	열연 철강 구조물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7216.31/32 /33/40/50 7228.70	반덤핑	2014.11.20.~ 2029.11.20.
5	철강/금속	아연도금 강판 (Zinc coated(galvanised) steel)	7210.49.00 7212.30.00 7225.92.00 7226.99.00	반덤핑	2013.8.5.~ 2028.8.5.
6	철강/금속	구조용강관 (Hollow Structural Sections)	7306.30/61/69	반덤핑	2012.7.3.~ 2027.7.3.

자료: 호주 반덤핑위원회 참고(2025.8.20), 시드니무역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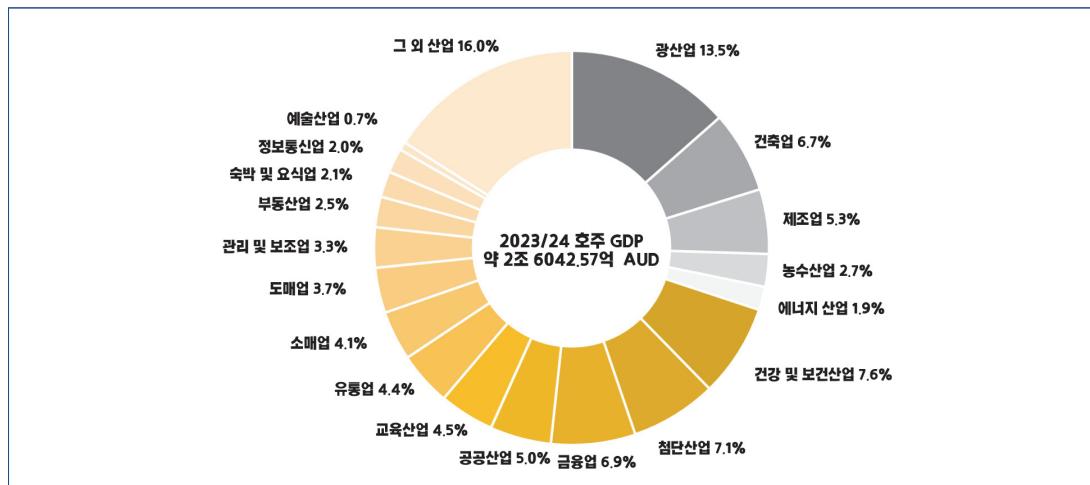
-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을 위한 정책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필름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논의 지속
 - 2025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100%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비 재활용성 필름 수입 제품에 대한 제재 가능성 확대
 -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 재활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 호주는 높은 임금과 운영 비용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금융, 의료, 교육, 관광)이 전체 GDP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외 광업, 에너지, 농·축산업이 발달
 - * 단일 산업 중에서는 광산업이 13.5%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업을 품종별로 분류

〈호주의 주요 산업별 GDP 기여 비중〉



주: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8.)

- 노동당 재집권에 따른 친환경 전환 사업 기조 유지 전망

- 2025년 5월, 노동당 정부의 재집권이 확정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첨단 제조업 육성 등이 본격화될 전망
- 같은 해 3월 발표된 「2025–26년 호주 연방 예산안(Australian Federal Budget 2025–26)」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이 지속 추진 중
- 특히, 에너지·기후 분야 및 관련 산업(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등)은 향후도 국가 차원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

※ 2025년 호주 노동당의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총선 공약

- 태양광 배터리 보급 확대 : 가구당 최대 4,000 호주달러(2,642 달러) 절감 혜택 제공
- 공공시설 에너지 업그레이드 : 지역사회 기반 공공 인프라 개선 부문에 1억 호주달러(6억 6,000만 달러) 투자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도입 : 2025년 7월 1일부터 신규 차량 대상 배출 기준 적용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현행 35%)
- 핵심광물 전략 비축 : 리튬, 니켈 등 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추진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05년 대비 43% 감축 목표 설정
-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확대 운영 : 청정에너지 보급 및 민간 투자 유도 강화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핵심광물 및 자원 가공)
 - 광업은 2023년 호주 GDP의 13.4%를 차지, 2025년 7월 산업 생산 비중에서는 12.2% 차지하며 단일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점유
 - 2025년 4월, 호주는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Critical Minerals Strategic Reserve)'를 도입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하고, 자국 경제 회복력과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공식화
 - 호주는 광물 채굴 및 원광 기초 가공에 주력해 왔으나, 제련, 정제, 가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변화를 시도
 - 특히 고부가가치 미드스트림(mid-stream) 산업인 처리 및 제조산업에 집중하며, 배터리 중간재 및 최종 제품 제조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
 - 핵심광물은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기술에 필수적인 원자료로, 에너지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 (태양광) 장치 및 설비 프레임(알루미늄)과 전선(구리)
 - (풍력) 발전 장치에 들어가는 영구자석(구리, 니켈, 아연, 희토류 등)
 -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
-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지붕형 태양광이 주도하는 발전 산업, 배터리 저장 및 송배전 산업도 확대
 - 호주는 풍부한 풍력 및 태양광 자원을 갖고 있으며, 자연적 이점을 활용한 에너지 발전에 집중
 - 2024년 기준, 호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구성에서 태양광이 1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풍력이 13.4%로 그 다음을 차지함
 - * 태양광 중 지붕형 태양광은 12.4%로 풍력 다음으로 큰 단일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가정용 배터리 보급과 함께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약정은 2023년 15억 달러에서 2024년 약 90억 호주달러(약 60억 달러)로 500%가량 증가하여, 2018년 이후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의 해로 기록
 - 대용량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진행 중이며, 송전망 확충과 함께 국가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목적
 - * 2024년 기준 호주의 건설 중인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는 38기로 2023년 27기 대비 약 40% 증가하였으며, 총 설비 용량도 8.7GW로 전년대비 2배 성장
- (라이프스타일) 한류 열풍에 힘입은 K-소비재 수요 확대
 - (식품) 호주의 식품시장 규모는 약 874억 달러에 이르며, 젊은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K-Food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
 - * 對호주 수출액 최근 3년간 평균 9.2% 성장, '24년 2억 4,000만 달러 달성

- (뷰티) 2024년 기준 한국 화장품은 호주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2.8% 성장
 - * 2025년 2분기 기준, 호주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1.1%(2위) 증가(GTA 9.2.)
- (프랜차이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유명 프랜차이즈의 호주 진출 수요가 꾸준히 확대
 - * 네네치킨, 신전떡볶이, 더본코리아 등 진출 완료, 파리바게트, 하남돼지집 등 진출 추진
- (신산업) 첨단 산업 기술 발전 및 AI·로봇 중심 미래 산업 육성
 - (바이오) 호주는 의료기기 수요의 약 8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EU, 중국 등
 - * 2025/26 정부 예산에서 공공병원 및 의료 서비스에 220억 달러 지원, 전년 대비 5.9% 증가
 - (스마트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위기와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디지털화가 주목
 - * 호주 최초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1ha 완공('24.12.), 2ha 규모 추가 건설 계획('25~)
 - (스마트시티) 호주 정부는 2029년까지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스마트시티 형태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 * 신재생에너지 Zone 사업과 연계한 신규 도시는 모두 친환경 스마트도시화
- (인프라·방산)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국방력 강화
 - (철도) 호주의 광활한 국토 개발을 위해 약 132억 달러 규모의 신규 철도 설치 및 교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
 - * 시드니와 멜버른 전동차 및 운영시스템 교체 사업(3조 1,000억 원) 수주지원 중
 - (방산) 호주 정부의 2024~25년도 국방예산은 약 557억 호주달러(363억 달러)로, 이는 호주 GDP의 약 2%에 해당
 - * 이는 총 GDP의 2% 차지, 전년 대비 6.3% 증가한 규모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지난 3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24년 투자유치액은 누계 기준 4조 9,706억 호주달러(3조 2,4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70억 호주달러(2,132억 달러) 증가
 - * 호주통계청은 2001년부 연간 누계 기준으로 투자액 공시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최대 투자유치국은 미국으로 누계 기준 1조 3,555억 호주달러(8,838억 달러)를 기록(27.3%), 그 뒤를 영국, 벨기에, 일본 등이 이음
 - 한국의 对호주 투자는 2024년 누계 기준 284억 호주달러(185억 달러)로 20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호주 투자유치의 0.6% 가량
 - 2024년 호주의 직접투자(FDI) 유치액은 810억 호주달러(528억 달러)

2002~2024년 국가별 호주 투자유치현황(누계)

(단위: 십억 호주달러, %)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대비 2024년 증감률	지난 5년간 증감률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합계	4,609.9	4,643.6	4,970.6	100.0	7.0	4.8
1	미국	1,094.5	1,152.1	1,355.5	27.3	17.7	6.2
2	영국	962.9	877.3	839.1	16.9	-4.4	4.4
3	벨기에	359.4	379.2	386.1	7.8	1.8	0.6
4	일본	264.6	270.1	282.9	5.7	4.8	2.4
5	홍콩	146.7	154.3	180.8	3.6	17.2	4.0
6	싱가포르	149.7	142.4	144.8	2.9	1.7	7.8
7	룩셈부르크	88.7	104.4	114.1	2.3	9.3	3.4
8	캐나다	105.2	104.0	111.2	2.2	6.9	14.7
9	독일	53.8	55.7	89.8	1.8	61.4	11.1
10	네덜란드	90.7	91.6	88.9	1.8	-3.0	0.7
20	한국	28.1	28.5	28.4	0.6	-0.3	-2.3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5월 중), 2001년~2024년 누계 투자유치액, 순위는 2024년 기준, AUD 1 = USD 0.65(2025.9.5.)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8.)

□ 호주 주요 투자유치 산업

- 광업은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산업 분야
 - 2024년 호주 광업에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누계 4,077억 호주달러(2,658억 달러), 31.8% 차지
 -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111.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

- 전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도소매업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3.8% 하락

2002~2024년 산업별 호주 직접투자유치현황(누계)

(단위: 십억 호주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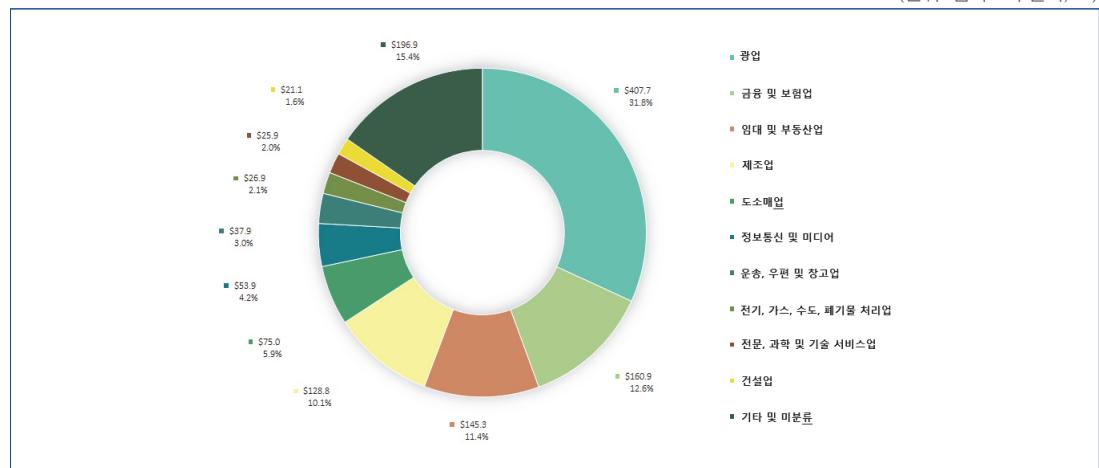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대비 2024년 증감률	지난 5년간 증감률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합계	1,157.2	1,182.4	1,280.4	100.0	8.3	4.6
1	광업	380.0	400.0	407.7	31.8	1.9	2.1
2	금융 및 보험업	145.5	145.9	160.9	12.6	10.3	8.3
3	임대 및 부동산업	147.5	139.2	145.3	11.4	4.4	4.5
4	제조업	118.6	118.4	128.8	10.1	8.8	0.4
5	도소매업	74.7	78.0	75.0	5.9	-3.8	5.9
6	정보통신 및 미디어	25.5	25.5	53.9	4.2	111.4	7.8
7	운송, 우편 및 창고업	29.4	32.9	37.9	3.0	15.1	5.3
8	전기, 가스·수도·폐기물 처리업	24.5	23.2	26.9	2.1	15.9	0.2
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	16.6	25.9	2.0	55.4	5.8
10	건설업	21.5	20.1	21.1	1.6	4.7	11.6
	기타 및 미분류	133.4	142.6	154.5	12.1	8.0	9.9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5월 중), 2001~2024년 누계 투자유치액, 순위는 2024년 기준, AUD 1 = USD 0.65(2025.9.5.)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8.)

〈2023년 산업별 对호주 FDI 누적 투자액〉

(단위: 십억 호주달러, %)



주: AUD 1 = USD 0.65(2025.9.5.)

자료: Austrade(2025.8.)

□ 주요 경쟁국의 호주 투자유입 동향

- (미국) 호주의 외국인 투자유입 중 18.4%는 미국이 주도
 - 2024년 미국의 對호주 FDI 투자는 2,353억 호주달러(1,5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6% 증가
 - 미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및 자원개발, ICT,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이며, 양국 안보협정 및 방위기술 협력에 따른 관련 분야 투자 지속 확대
 - 한편, 미국의 금리 및 무역 정책 등 변화가 전반적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양국의 전략적 경제 관계, 자원 협력, 방위산업 및 기술 분야 협력으로 향후 호-미 투자 관계는 견고할 전망
- (일본) 호주 누적 투자국 3위이자 아시아 지역 최대 투자국
 - 2024년 일본의 對호주 투자는 1,595억 호주달러(1,0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사상 최대치 기록, 지난 11년간 매년 FDI가 증가한 유일한 국가
 - 일본의 투자는 부동산, LNG,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 기술, 금융 서비스, 소비재, 인프라, 주택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
 - 한편, 투자 분야는 지속 다각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연금 및 주식 관리 서비스 플랫폼, 운송 및 물류, 데이터 센터, 식품 기술, AI 및 기업 IT 서비스 등으로 투자가 확대
- (중국) 중국의 호주 투자 규모 최근 6년간 지속 감소세
 - 2024년 중국의 對호주 FDI 투자는 365억 호주달러(238억 달러), 전년 대비 1.7% 감소
 -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호주의 중국발 해외투자 규제 및 프로젝트 심사 강화로 프로젝트 미승인 사례가 증가, 중국의 호주 투자 규모 지속 감소
 - 중국의 호주 내 주요 투자산업은 광업,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집중되어 있는 한편, 중국 정부가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함에 따라 해외 관련 분야 투자가 감소, 이로 인해 對호주 전반 투자 규모 감소에도 영향

□ 호주의 對한국 투자 현황

- 2024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신고 53건, 신고액 2억 8,840만 달러, 투자액 8,889만 달러
 - 호주의 해외투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1% 미만(2023년 0.8%)
 - 2024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 비중은 서비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고 건수는 예년 대비 112% 증가, 신고 및 투자금액은 각 60%씩 감소
 - 2025년 2분기까지의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신고 23건, 신고액 8,212만 달러로 집계
- 호주의 對한국 투자 누계(1962-2024)는 신고 785건, 신고액 60억 달러, 투자액 34억 달러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25억 달러, 서비스업 9억 4,367만 달러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일부 분야에 집중
- 세부 분류 기준, 운송용 기계제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이 23억 달러로 가장 높음

호주의 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업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0년	24	17	7,247	5,460
2011년	22	18	90,186	4,401
2012년	27	14	152,569	15,811
2013년	22	9	50,491	27,539
2014년	24	15	139,833	123,838
2015년	31	16	85,193	27,046
2016년	45	25	79,157	35,840
2017년	26	12	142,330	35,665
2018년	33	20	2,007,357	2,004,188
2019년	27	16	107,573	54,296
2020년	15	11	6,322	4,752
2021년	22	12	125,242	53,279
2022년	19	12	153,005	102,220
2023년	25	14	721,536	55,417
2024년	53	23	288,401	88,899
누계(1962~2024년)	785	360	6,062,645	3,351,20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5.8.20.)

□ 한국의 호주 투자 진출

- 2024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 114건, 신고액 10억 5,410만 달러, 투자액 8억 9,724만 달러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광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신고 금액은 224%, 투자금액은 36% 증가
 - 투자금액 기준 광업 20% 증가, 특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6%, 146%, 332% 대폭 상승
- 한국의 對호주 투자 누계(1980~2024)는 신고 2,703건, 신고액 280억 달러, 투자액 203억 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126억 달러, 부동산업 26억 달러, 제조업 17억 달러, 금융 및 보험업 15억 달러 순

한국의 對호주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Q.	
	금액,건	증감	금액,건	증감	금액,건	증감	금액,건	증감 (전년동기대비)
투자금액	1495	26.9	660	-55.9	897	35.9	333	152.3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7	-3.6	20	-25.9	29	45	6	-33.3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5.8.20.)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한화, 호주 기업 오스탈 지분 인수로 글로벌 방위산업 및 조선업 입지 강화

- 기업정보
 - 한화 : 호주 방산 및 조선업체인 오스탈(Austal)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로, 호주 방위산업 및 조선업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오스탈(Austal) :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양방산회사로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로 142억 호주달러(93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보유, 미국 내 소형 수상함, 군수지원함 시장점유율 40~60%로 1위를 차지
- 성공 사례
 - 2025년 3월, 한화 그룹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 및 방위산업체인 오스탈社의 지분을 인수
 - 오스탈社는 미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로 한화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조선·방산 분야의 키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
 - 한화는 3월 17일 호주증권거래소 장외거래를 통해 오스탈社의 지분 9.9%를 직접 매수하였으며, 해당 지분 외에도 호주 현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로 9.9% 지분에 대한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
 - 한화의 이번 지분 인수는 글로벌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의 호조 속에 오스탈社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호주 뿐 아니라 나아가 미국까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 한편, 한화는 19.9%까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6월 6일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 오스탈(Austal)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승인을 득, 이는 한화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
 - 최종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 허가 대기중
- 시사점
 - 이번 지분 인수와 TRS 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넘어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및 조선업 분야에서 기술력 및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더욱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미국 정부의 지분 보유 승인은 한화의 기술력과 업계 신뢰성을 반영한 중요한 성과로, 향후 미국 방산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화의 글로벌 방산 및 조선업 입지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 한화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동국CM, 호주 시장 공략을 위한 멜버른 사무소 설립

- 기업정보
 - 동국CM : 동국제강그룹의 컬러강판 전문 자회사로, 프리미엄 건축용 강재 브랜드 'Luxteel'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 성공 사례
 - 2025년 4월 10일 동국제강그룹 계열사인 동국CM은 호주 멜버른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
 - 이는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대비한 호주 고급 건축자재 전략 거점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현지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
 - 이번 진출은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프리미엄 자재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 동국CM은 미국, 일본, 멕시코, 인도, 태국, 베트남, 독일에 이어 호주를 여덟 번째 진출 국가로 추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 함
 - 한편, 2015년 호주 시장 진출 이후 동국CM의 컬러강판 수출량은 현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5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번 사무소 설립은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동국제강의 호주 현지 거점 설립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오세아니아 건설 시장 공략과 글로벌 입지 강화라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
 - 이를 통해 동국제강은 프리미엄 철강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호주를 포함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자료: Business Korea(2025.4.11.)

□ 호주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노무) 외국인 투자 프레임워크 입법 개정안, 2021년 1월 1일 발효
 - (고용 계약)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구도 또는 서면을 통하여 양측 합의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계약 형태는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로 구분 가능, 호주 국가 고용 기준에 따라 계약서에는 10개 항목의 최소 고용 기준이 포함
 - * 필수 포함 항목 : (1)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 (2) 자유 근무시간 협정 요구, (3) 출산 휴직 및 육아 관련 권리, (4) 연차 휴가, (5) 개인 휴가(병가 및 보호자 휴가) 및 사별 휴가, (6) 지역사회 봉사휴가, (7) 장기근속 휴가, (8) 공휴일, (9) 해고 공지 및 퇴사 급여, (10) 공정 근로 선언문 조항
 - (근로 시간) 호주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으로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한 시간 이외에 근무한 시간은 추가 근무(Overtime)로 간주
 - (휴가) 호주의 휴가제도는 연차 휴가 연 20일, 병가 연 10일, 동일 고용주 하 10년 이상 근속 시 2개월의 장기근속 휴가(근속 연수 기준 주별 상이), 그리고 경조사 휴가 의무 제공을 규정

- (해고) 고용주는 해고 시 사전 통보해야 하며, 통보는 전달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 근무 종료일에 소멸
 - * 사전 통보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1주에서 4주 사이이며, 근로자가 위법 행위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보 불요
 - * 다만, 고용주는 근로시간·연차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45세 이상이고 최소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평균 해고 통보 기간에 1주를 추가해야 함
- (퇴직금) 퇴직금에는 미지급 근무수당·추가근무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되며, 정리해고 시에는 정리해고 수당도 지급(단, 소기업·캐주얼 고용인은 예외)
- (법규) 외국인 투자 프레임워크 입법 개정안, 2021년 1월 1일 발효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는 호주의 주요 외국인 투자 제안을 사례별로 검토하며, 재무장관에게 자문을 제공 및 투자자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 * 1975 외국의 획득 및 취득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 국가 이익 테스트나 국가 안보 테스트를 사용하여 제안된 외국 투자를 평가
 - 호주는 투자심사 시 국익 및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세금, 고용, 세수입, 환경, 호주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쟁 등을 고려하며 민감한 사업 및 토지의 투자를 제한
 - * 국가안보 사업: 가스, 전기, 수도, 항구, 대중교통, 화물 서비스, 항공, 병원, 데이터 처리 및 금융서비스, 통신, 국방 또는 국가 정보 부문 또는 공급망과 같은 인프라 부문
 - * 국가안보 토지: 국방부 소유의 토지 및 국가 정보기관이 관심 있는 토지
- (산업 규제) 호주 광업 부문 투자 규제
 - 호주에서 광산 채굴을 위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 및 북호주(NT)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관할
 -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업계획과 탐사 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탐사 라이선스를 사전 인가 받아야 함
 - 최근에는 원주민과의 협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강화되었고, 디지털 신청 시스템이 도입
 - 또한, 기업은 광물 탐사 작업에 대한 공표 의무가 있으며, 탐사 및 발굴을 원하는 지역의 소유주에게 보상비용을 지급
 - 각 주는 광물 개발 유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음을 입증
 - 광산 채굴 임대권은 탐사 라이선스나 유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 시 공표 의무를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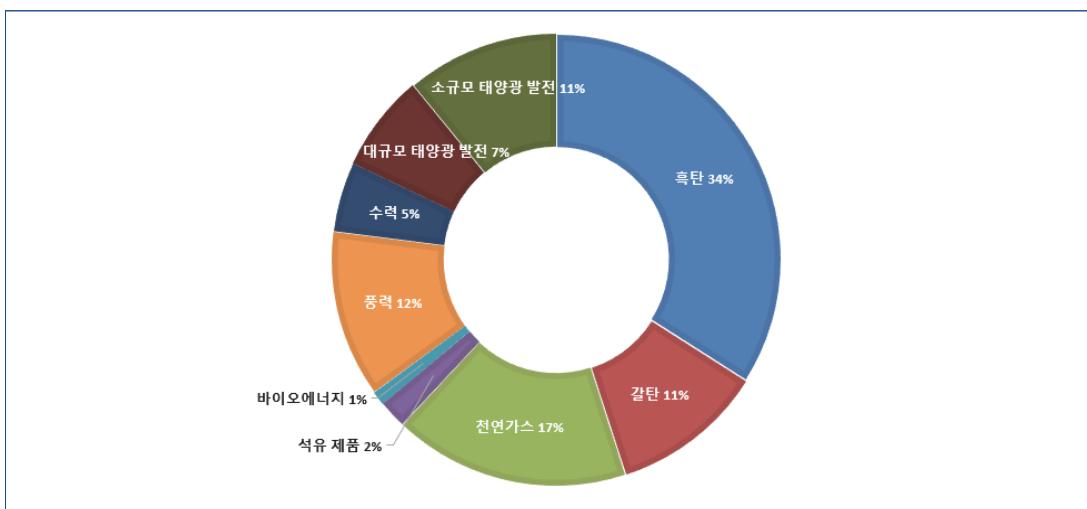
2. 유망 산업

가. 에너지(전력)

□ 개요

- 호주 전력산업 규모 및 동향
 - 호주 에너지 통계(Australian Energy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호주의 총 전력 생산량은 2023년 대비 3% 증가한 약 283,920기가와트(GWh)로 추산
 - 전체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약 102,403GWh로 호주 전체 전력 생산량의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가장 큰 원천은 태양광(18%)이며, 풍력(12%)과 수력(5%)이 그 뒤를 이음
- 화석연료는 2024년 전체 전력 생산량의 64%(181,518GWh)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수치
- 지역별 전력 생산량은 높은 인구 밀집도와 경제 규모를 가진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퀸즐랜드 주와 빅토리아 주가 이어
- 발전원별로는 석탄이 전체 발전의 45%를 차지해 가장 높고, 그 뒤를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이 잇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순
- 호주 정부의 넷 제로 달성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전력산업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

〈호주의 상위 수출 국가〉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시드니무역관 재구성

- 관련 품목 수출입 동향

(1) 전력 변환기(HS Code 850440)

-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핵심 장치로,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
- 2025년 6월 누계 기준 호주의 수입 규모는 8억 5,685만 달러, 수출은 6,617만 달러로 높은 수입 편중을 보임
 - * 호주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38.3%) 수입하였으며,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가 뒤이음
- 동일 기간,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약 130만 달러(0.2%) 규모의 제품을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
- 호주의 전력 변환기 시장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과 품질·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유럽산 제품이 양분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효율·고신뢰성 전력 변환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2) 고압전선(HS Code 854460)

- 대규모 송배전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구축에 필수 자재로, 전력 인프라 확충에 따라 시장성이 높은 품목
-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전선의 2025년 6월 누계 기준 호주 수입액은 1억 8,280만 달러, 수출액은 450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
 - * 2025년 상반기, 호주는 중국(65.6%)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며, 인도, 베트남, 한국 순
- 동일 기간,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약 577만 달러(3.2%)를 수입, 전체 수입 대비 미미한 수준
- 호주의 전선 제품 수입은 가격경쟁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들에 집중
- 호주 전력시장에서 고압전선은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연계 송전 인프라 구축,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

□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AGL) 뉴사우스웨일스에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 추진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L, NSW Hunter 지역 500MW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L은 호주 최대의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전력·가스 생산과 소매를 모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사업에도 적극 투자를 진행 - AGL은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Hunter 지역에 500MW/2,000MWh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을 건설하기로 최종 투자 결정 - 이 프로젝트는 8억 호주달러(5억 1,400만 달러) 규모로 2025년 말 건설을 시작해 2027년 말 가동할 계획이며, 예상 수명은 20년 - AGL은 에너지 저장 회사인 플루언스(Fluence)를 프로젝트 건설사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 Tomago 알루미늄 제련소 인근 500MW/2,000MWh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 승인, Yadnarie 태양광 및 장기 저장 프로젝트 인수 및 개발 옵션 확보 등 활발히 프로젝트 추진

- (EnergyAustralia) NSW주 전력망 안정성 강화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지원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nergy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rgyAustralia, Waratah Super Battery 운영 최적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ergyAustralia, 호주 주요 전력 소매·발전 기업으로, 가정·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며 재생에너지 및 대규모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 - NSW 전력망 주요 운영자로서, 배터리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인 Waratah Super Battery가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통합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ratah Super Battery 프로젝트는 NSW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로 850MW의 용량을 목표로 함 - EnergyAustralia는 전력 소비 패턴과 시장 수요를 분석하여 Waratah Super Battery가 최적화된 방식으로 전력망에 기여하도록 관리

□ 전망 및 기회요인

- 호주의 2050 넷 제로 목표와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 호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NEM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
 - 이를 위해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 대규모 배터리 및 저장시설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화
 - 이러한 노력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조금 확대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수요 확대 전망
 - 호주는 태양광과 풍력의 급증에 따라 BESS 시스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2025년 2분기(평균 162MW)에 배터리 방전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BESS의 역할이 강화

- 호주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저렴한 가정용 배터리 프로그램(Cheaper Home Batteries, 이하 'CHB')을 시행
- 23억 호주달러(15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과 연계된 배터리 설치 비용의 약 30%를 지원
- 가계는 이를 통해 가정용 배터리 저장 시스템 설치비용 및 전기요금 절감 가능
 - * 기존 약 1만 3,000 호주달러(8,476 달러)의 11.5kWh 배터리 설치 (초기)비용에서 4,000 호주달러(2,608 달러)가량 절감 가능, 할인 혜택은 BESS 사용 가능 용량에 따라 지급되며 2030년까지 점진 감소
- 멤버른 소재 태양광 컨설팅사 SunWiz에 따르면, CHB 프로그램 시행 후 7월 등록 건수는 하루 평균 1,400건으로 최고치 기록
- 한국 기업은 제조·설치·유지보수·기술개발 참여로 호주 가정용 배터리 시장 진출 기회 확보 가능
- 호주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회
 - 호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인프라, 기자재, 디지털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수출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정부 주도의 송전망 확충 및 대규모 배터리 구축 사업은 고압 송전기자재, 변전설비, ESS, 보호 계전기, 전력 계측 시스템 등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뒷받침
 - 호주 정부의 가정용 배터리 설치 보조금과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 정책은 스마트 계량기, 고효율 가전 등 B2C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다대

나. 첨단(기술혁신)

□ 개요

- 호주 기술 혁신 산업 규모
 - 호주는 약 1,670억 호주달러(1,089억 달러) 규모의 기술시장을 보유, SaaS, 핀테크, 로보틱스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허브로 자리
 - 호주 기술산업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6% 내외의 성장을 기록, 2030년에는 국가 경제에 2,500억 호주달러(1,630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호주는 세제 혜택, 인센티브, 안정적인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벤처 투자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선도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입지를 강화
- 관련 품목 수출입 동향
 - (1) 리튬 이온 배터리(HS Code 850760)
 - 리튬이온 배터리는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로, 수요의 주요 동력은 전기차(EV), 중소형 ESS, 그리고 소비자 전자기기 확산

- 2024년 기준, HS Code 850760에 해당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호주 수입 규모는 약 33억 4,206만 달러로,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48.5%를 차지하고, 한국은 4위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의 약 1.7%를 점유
- 한국의 대호주 수출은 2024년 전년 대비 13.9% 증가해 4,600만 달러를 기록
- 2025년 6월 누계 기준 호주의 수입액은 15억 5,319만 달러, 수출액은 2,223만 달러로 뚜렷한 수입 의존 구조를 보임
 - * 호주는 중국(70.7%)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뒤를 이음
- 동일 기간,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약 1천만 달러(0.7%)를 수입, 전체 수입 대비 미미
- 2025년 상반기 기준, 호주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은 92% 이상을 중국과 미국에 의존,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두 국가의 절대적 영향력을 반영

(2) 다목적 로봇(HS Code 847950)

- 다목적 로봇은 산업 자동화·인력 대체·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총족시키는 핵심 품목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성과 응용 분야 확장성이 높음
- 2025년 6월 누계 기준 호주의 수입액은 1,193만 달러, 수출액은 687만 달러로 뚜렷한 수입이 다소 우위를 보임
 - * 호주는 중국(28.5%)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며, 기술력과 품질 강점 보유한 미국, 일본 등이 뒤를 이음
- 동일 기간,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약 25만 달러(2.1%)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2025년 미국·일본·덴마크는 산업·서비스용 로봇 분야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Sicona) 소재 혁신 스타트업 Sicona, 글로벌 배터리 시장 진출 가속화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Sic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Sicona, 인도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cona는 호주 Wollongong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 실리콘 복합 음극(SiCx) 소재를 개발하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 20%, 충전 속도 40% 이상 향상되는 혁신 기술을 보유 - 2025년 초 인도 Himadri Specialty Chemical과 1,500만 호주달러(978만 달러) 규모 라이선싱 계약 체결. 향후 연간 26,500톤 음극재 생산 계획으로 글로벌 확장 본격화 - 소재 단계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호주 기업 최초로 배터리 원천기술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 (SwarmFarm Robotics) 자율 농업로봇 상용화와 오토팔 시스템 등 기술 혁신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Fastbrick Robo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armFarm Robotics, 자율 농업로봇 'SwarmBot' 확산 및 Wellcamp 제조 허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armFarm Robotics(퀸즐랜드 소재)는 2012년 아이디어 착수, 2015년 법인 설립 이후 '가벼운 자율 로봇+자체 수리 가능 설계' 철학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 2025년 현재 145대 이상의 SwarmBot이 호주 농장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약 30만 시간 작동, 280만 헥타르 면적을 커버 - 2025년 2월, Wellcamp에 제조 허브를 개설, 오토팔(Autofill) 시스템* 개발 <p>* Autofill은 최대 8종의 농약·비료·첨가제를 정밀 계량·자동 혼합하여 SwarmBot에 공급하는 장비로, 작물·토양·작업 조건에 맞춰 현장에서 즉시 배합이 가능</p>

□ 전망 및 기회요인

-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첨단기술 수요 확대
 - 호주는 제조업, 물류, 농업, 의료, 광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첨단기술 기반 자동화 설비 도입을 확대
 - 특히 제조 현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확산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관리가 향상되고,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자동분류시스템이 빠르게 정착
 - 의료 분야는 AI 진단, 디지털 헬스, 원격 진료가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으며, 광산·농업 등 고강도 산업에서는 로봇 자동화가 인력난 해소와 비용 절감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
 - 이러한 변화는 호주 기업들의 첨단기술 투자 결정을 앞당기는 측면으로 작용
- 제도·사회적 수용성 강화로 인한 시장 안정화
 - 호주 인프라·교통 장관 회의는 2022년 2월 국가교통위원회의 '운행 중 안전 권고안'을 승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안전법 제정, 주·준주 법률 개정, 신규 규제기관 설립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
 - 이러한 제도 정비는 최종 구간 물류 등 신사업 확산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안전성·개인정보·사이버 보안 관련 표준·인증 체계가 병행되며, 투자유치와 글로벌 협력 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다. 소비재(뷰티)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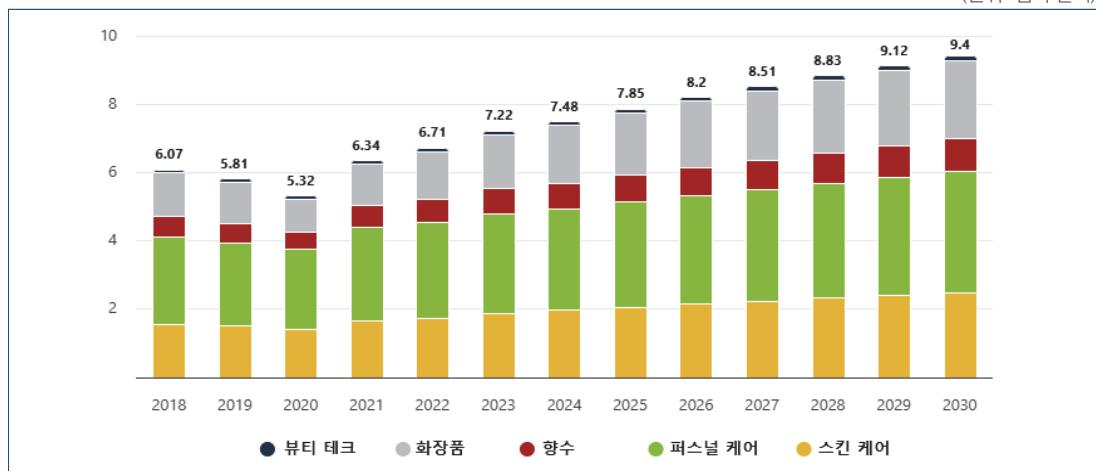
- 호주 뷰티·퍼스널 케어(Personal Care) 시장 규모
 - Statista에 따르면, 2025년 호주의 뷰티·퍼스널 케어 시장 규모는 약 78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뷰티·퍼스널 케어: 뷰티 테크(Beauty tech), 화장품, 향수, 퍼스널 케어, 스킨 케어 등이 포함

- 호주 뷰티 산업은 퍼스널 케어 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은 2025년 약 30억 8,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소비 부문에서는 2025년 기준 1인당 지출이 약 291.3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매출의 37.1%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호주 뷰티·퍼스널 케어 시장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 확대로 인해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호주의 뷰티·퍼스널 케어 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

- 한국 화장품의 호주 수출 역대 최대 달성
 - (2025년) GTA 7월 누계 기준, 호주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해 전체 화장품 수입에서 14.6%를 차지, 미국(24.7%)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2024년) 호주 수입 기준, 한국 화장품(HS Code 3304) 수입액은 1억 2,42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8% 증가하며 최초 1억 달러 상회
 - (2023년) 호주 수입액은 9,359만 달러(5위)로 전년 대비 64.7% 증가, 동일 기간 상위 5개 수입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수입이 증가
- 관련 품목 수출입 동향
 - (1)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
 - 2025년 6월 누계 기준 호주의 수입 규모는 39억 9,417만 달러, 수출은 1억 8,625만 달러로 집계
 - *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24.1%) 수입하였으며, 한국, 프랑스, 중국 등이 뒤를 이음
 - 동일 기간,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약 6,629만 달러(16.6%) 규모의 제품을 수입,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

- 호주의 화장품 시장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유력 브랜드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K-뷰티의 빠른 성장으로 아시아계 제품의 위상이 점차 확대
- 스킨 케어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을 중심으로 투명성·지속가능성·효능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화될 전망

(2) 모발 관리 제품(HS Code 330590)

- 2025년 6월 누계 기준 호주의 수입 규모는 1억 1,974만 달러, 수출은 2,605만 달러로 집계
 - *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22.2%) 수입하였으며, 이탈리아, 태국, 중국 등이 뒤를 이음
- 동일 기간,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약 136만 달러(1.1%) 규모의 제품을 수입, 전년 동기 대비 123.2% 대폭 증가
- 호주 해어 케어(Hair Care) 시장은 스키니피케이션(Skinification) 트렌드와 건강 지향적 소비 패턴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 스피니케이션 : 해어 케어 제품이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 피부 관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두피와 모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 자연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두피와 모발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혁신적 제품들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L'Oréal) 대중부터 프리미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포트폴리오로 시장 전반 커버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L'Oré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real, 호주 해어 및 스킨 케어 시장에서 혁신·공급망·브랜드 성장을 동시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레알(L'Oréal)은 호주 해어 케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기업으로, 관련 전체 시장의 17% 이상을 차지 - 한편, 스킨 케어 부문에서는 Galderma 지분 10% 인수 및 Gjos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과학 기반·지속가능 스킨케어 혁신 확대 - 또한 4,000만 호주달러(2,608만 달러) 규모의 퀸즐랜드 물류센터 설립으로 공급망·출시 속도·지역 협진 강화 - 더모코스메틱(Dermocosmetic) 브랜드로 기능성 케어 수요 증가를 적극적으로 활용

- (Indie Beauty Brand) 커뮤니티 중심의 바이럴 마케팅으로 기존 글로벌 브랜드에 도전하며 경쟁 구도를 재편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Indie Beauty Br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망 확대와 라이프스타일 포지셔닝, 임상 검증 기반 제품으로 스킨·바디케어 혁신 성장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카(Mecca), 세포라(Sephora), 프라이스리인(Priceline) 등 주요 전문 소매 채널을 통해 빠르게 입점 확대 - 라이프스타일 중심 포지셔닝, 감각적 디자인, 임상 검증 제형으로 Z세대·청소년 소비자층을 흡수 - 청소년 스킨케어, 기능성 바디케어,マイ크로바이옴(Microbiome) 친화적 혁신 분야에서 성장세 가속

□ 전망 및 기회요인

- 시장 양극화 가속 전망
 - 향후 호주 뷰티 시장은 저가·고기능 브랜드의 성장과 과학 기반 프리미엄 브랜드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적 압박 속에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제품을 선호하는 반면, 프리미엄 브랜드는 임상적 검증, 맞춤형 솔루션, 웰빙 중심 제품을 통해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양한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 성장세 지속 전망
 - 피부·바디·헤어 케어 카테고리 등 다양한 퍼스널 케어 내 다기능·마이크로바이옴 친화적·장벽 강화 제품 수요가 늘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
 - 특히 Z세대와 10대 초기 고객층의 신규 진입, 중장년층의 고기능 제품 수요 확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프리미엄화와 제품 다각화 전략
 - 소비자 루틴은 '의도적 미니멀리즘'으로 전환되며, 다수의 제품보다 소수의 고성능 제품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 다대
 - 이에 따라 스킨, 헤어, 바디 등 뷰티 관련 브랜드들은 카카두 플럼, 유칼립투스 등 호주산 원료를 활용한 과학 기반 제품을 확대하고, 연령과 취향별로 세분화된 라인업을 통해 소비자층을 보다 폭넓게 공략할 필요가 있음
- 기술 혁신을 통한 맞춤형 소비자 경험 강화
 - AI 진단, 맞춤형 제품, 스마트 배송 등 기술 발전은 소비자 경험을 단순화하면서 개인화 강화에 기여
 - 뷰티 소매업계는 디지털 도구, 리필, 교육 중심 판매를 통해 충성도를 높이며,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형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개인화를 결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 이러한 변화는 K-뷰티가 맞춤형·체험형 전략과 현지 유통망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한·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교역 성과 및 활용 현황

- 한·호 FTA, 2024년 12월 12일 발효 10주년 맞이하며 양국 협력 성과 재조명
 - 양국 총 교역액은 2014년 307억 달러에서 2024년 456억 달러로 증가
 - 2025년 9월 기준, 호주는 모든 한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상태
 - * 한국은 호주 수입품의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

지난 10년간 한호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 교역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4년	45,553	-10.0	15,598	-12.3	29,955	-8.7	-14,357
2023년	50,614	-20.5	17,791	-5.1	32,823	-26.9	-15,032
2022년	63,682	49.3	18,753	92.3	44,929	36.5	-26,176
2021년	42,668	71.4	9,750	57.6	32,918	76.0	-23,168
2020년	24,896	-12.6	6,189	-21.6	18,707	-9.2	-12,518
2019년	28,499	-6.0	7,891	-17.9	20,608	-0.5	-12,717
2018년	30,329	-22.3	9,610	-51.6	20,719	8.1	-11,109
2017년	39,022	72.1	19,862	164.8	19,160	26.3	702
2016년	22,677	-16.8	7,501	-30.7	15,176	-7.7	-7,675
2015년	27,269	-11.2	10,831	5.3	16,438	-19.5	-5,607
2014년	30,696	1.1	10,283	7.5	20,413	-1.8	-10,130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9.2.)

- 한·호 FTA 수출입 활용률, 평균 86%의 안정적 단계 안착
 - 2025년 2분기, KAFTA 수출입 활용률은 수출 90.1%, 수입 81.9%
 - 對호주 수출 활용률은 기계류(96.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92.6%), 전자·전기제품 (86.6%) 순
 - 對호주 수입은 세 가지 산업군 제외한 전반 산업에서 80% 이상의 활용률을 기록
 - * 수입 활용률 80% 미만 산업군은 광산물(73.6%), 기계류(63.2%), 전자·전기제품(61.9%)

한·호주 FTA 활용률(2025년 2분기 기준)

(단위: %)

품목	수출 활용률	수입 활용률
농림수산물	84.6	98.7
광산물	24.4	73.6
화학공업제품	61.9	95.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92.6	87.4
섬유류	78.5	87.2
생활용품	81.2	83.7
철강·금속 제품	83.7	91.0
기계류	96.1	63.2
전기전자제품	86.6	61.9
잡제품	14.7	99.6
합계	90.2	81.9

주: 품목은 산업별 MTI1 기준

자료: 한국 관세청(2025.9.2)

**한-호 자유무역협정(KAFTA) 10주년 공동위원회 개최****• 개요**

- 2024년 9월 3일,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무역·관광부 장관과 정인교 한국 무역부 장관은 한·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호주 퍼스에서 제6차 공동위원회를 개최

• 내용

- 양국 대표는 KA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역·투자 확대 성과를 평가
- 더불어 양국 간 디지털 무역, 녹색 경제 및 에너지 광물 협력, 콘텐츠 규제 등에 대한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RCEP, IPEF 등 다자적 무역 규범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호주와 한국 간의 디지털 무역 및 교류 확대가 기대되며,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이는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G2G) 한·호 에너지·광물 협력으로 공급망 확보 추진

- FTA 10주년 맞은 한·호주, 청정에너지·핵심광물 협력 강화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호 FTA 10주년을 맞아 2024년 9월 호주 퍼스 방문
 - 양국은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



한·호 FTA 10주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

- 개요
 - 2024년 한국과 호주는 양국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관련 업무협약 (MOU)을 체결
- 내용
 - (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LNG, ▲CCS(Carbon Capture & Storage),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핵심광물 협력) 한국은 배터리·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호주의 리튬, 희토류, 코발트 등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호주는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술 교류를 환영
 -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호주는 '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을 통해 청정수소,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제조를 적극 육성 중이며, 이번 MOU를 통해 한국 기업의 참여 기반이 마련
 - (LNG 및 CCS)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호주산 LNG 공급망을 강화하고,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CCS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이번 MOU 체결은 에너지와 광물 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안정적 자원 확보에 기여할 전망
 - 특히, 호주의 '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과 연계해 한국 기업은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CCS 등 분야에서 기술·투자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에너지 수입 차원을 넘어, 한국 기업이 청정에너지 기술을 수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국제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한국 기업의 기회
 - 호주는 2021년 이후 미국, 일본, 한국 등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동맹을 강화해 왔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
 - 특히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에는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14개국이 참여하여,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진행 중
 - 한국 정부 역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33종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해외 투자·공동 탐사·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
 -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호주 정부 및 주요 광산기업과의 공동 탐사, 인프라 투자, 금융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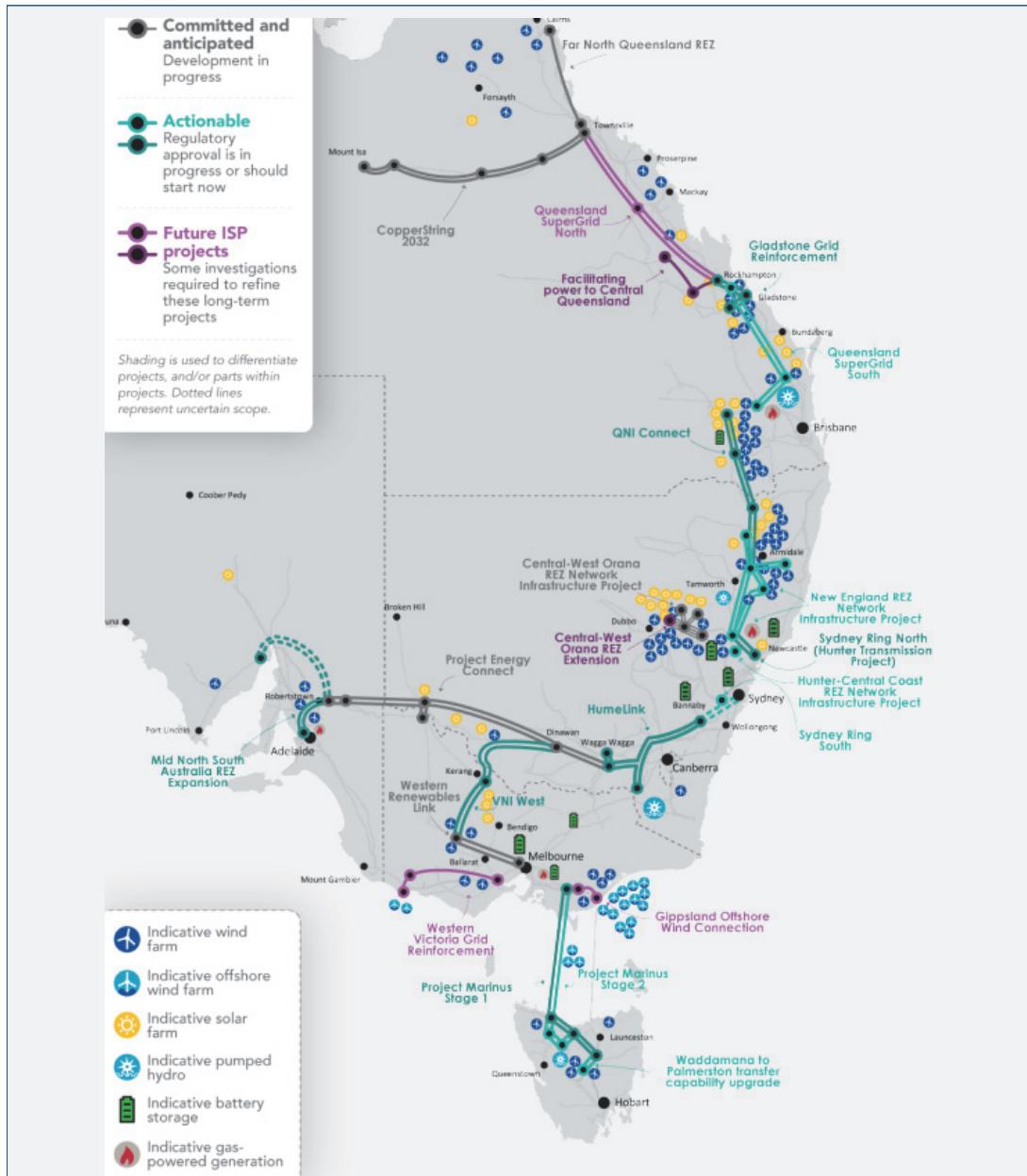
나. 프로젝트 I – 전력인프라

□ 호주 정부의 전력망 현대화·안정화 프로젝트 확대

- 호주의 기존 전력망 구조
 - 호주의 기존 전력망은 중앙집중식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를 중심으로 설계
 - 이에 현재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 구조를 수용하기에는 여러 기술적·물리적 한계*에 직면
 - * 중앙집중식 설계의 구조적 한계, 간헐성과 수급 불안정성, 전력망 연결의 한계 등
 -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며, 전력망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
- 호주 정부의 전력망 현대화 계획(Rewiring the Nation)
 - 전력망 현대화 계획은 노후 송전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호주 정부의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 구조적 한계, 간헐성, 수급 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해 신규 송전망 건설과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집중투자해 전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현대화
 -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안정을 도모하며, 2030년 온실가스 43%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
- 통합 시스템 계획
 - 전력망 현대화와 에너지 전환의 방향 및 우선순위는 AEMO*가 2년마다 발표하는 통합 시스템 계획 (Integrated System Plan, ISP)으로 관리
 - * 호주 에너지 시장 운영자(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AEMO)
 - ISP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해 최적 개발 경로를 제시하며, 이에 따른 연간 자본 투자액은 2050년까지 총 1,220억 호주달러(7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이 계획은 미래 수요 예측, 공급망 설계, 송전망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전력망 현대화 계획 프로그램이 ISP에 따라 인프라 확장을 추진
 - ISP에서 제시하는 신규 발전소 구축, 송전망 연결, 저장시설 개발 등은 다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엄격한 검토와 승인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
 - ISP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필요한 총 1만km의 송전망 중 약 5,000km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
 - 또한 ISP는 2년마다 업데이트되어 기술 발전, 비용 변화, 정부 정책 변동 등 최신 상황을 반영하며 계획의 실효성을 유지
 - 대규모 프로젝트는 주로 AusNet, Transgrid, Powerlink 등 주요 전력망 운영사가 주도하며, 다양한 하도급업체들과 긴밀히 협력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전력망 프로젝트는 주관사가 협력업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안서 평가 후 파트너사를 선정
- 한편, 전력망 현대화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뿐 아니라 송전선, 변압기·변환기, ESS 등 전력 인프라 전반의 부품 제조·납품 수요가 증가 추세

〈최적 개발 경로상의 송전 인프라 사업〉



자료: AEMO(2024 Integrated System Plan)

□ 호주 전력·재생에너지 분야 한국 기업 협력 유망 사례

- (B2G) 호주 NSW주 재생에너지 우선 사업에 선정된 아크 에너지
 - 호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투자를 적극 추진
 - 그중 아크 에너지가 참여한 Richmond Valley BESS 프로젝트는 NSW 주정부 우선 사업에 선정된 세계 최대급 8시간 방전 가능한 리튬배터리 구축 사례로 평가
 - 본 사업은 한국 기술력이 호주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과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향후 양국 에너지·전력망 분야 협력 가능성을 시사

성공 사례

- Richmond Valley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 위치: 호주 NSW주 Richmond Valley(Casino 인근)
 - 발주 주체: NSW 주정부 & AEMO Services
 - 참여사: Ark Energy(한국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 선정 시기: 2023년(Electricity Infrastructure Roadmap – Tender Round 3)
 - 계약 규모: 출력 275 MW, 저장용량 2,200 MWh(8시간 방출 가능)
 - 계약 형태: Long-Term Energy Service Agreement(LTESA) –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
- 내용
 - 아크 에너지는 한국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로 주로 NSW 전력시장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통합을 위해 대형 BESS 프로젝트에 집중
 - 당사는 2023년 NSW 주정부의 전력 인프라 로드맵(Electricity Infrastructure Roadmap)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LTESA)을 확보
 - LTESA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저장 프로젝트에 장기 수익 안정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정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전력 판매 수익을 보장
 - 본 프로젝트는 호주 내 8시간 방전 가능한 리튬배터리 BESS 중 세계 최대급으로 평가
 - 한편, 2025년 3월, 아크 에너지는 한화 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배터리, 인버터, 제어시스템 등 통합 공급 계약을 체결
 - 총 투자금의 일부는 NSW 정부와 연방정부의 에너지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본 프로젝트는 한국 에너지·배터리 기업이 호주 전력망 현대화 정책에 직접 참여한 대표 사례로, 호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2030년 온실가스 43% 감축,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
 - 호주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대규모 전력저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S, 배터리 제조, 전력망 솔루션 분야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향후 한국 기업들은 호주 내 로컬 파트너십 구축, 정부 보조금·지원정책 연계, 장기 전력판매계약(PPA) 활용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

- (B2B) 효성중공업, 변압기 공급으로 호주 에너지 전환 핵심 프로젝트 참여
 - 호주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장거리 송전망 확충과 핵심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
 - 퀸즐랜드 주정부의 CopperString 2032 프로젝트는 내륙 재생에너지를 동부 해안으로 연결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효성중공업은 이 사업의 핵심 장비 공급사로 참여하며, 한국 기업이 호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

성공 사례

- CopperString 2032 송전망 건설 사업 프로젝트 참여
 - 발주 주체: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산하 전력회사 Powerlink
 - 참여사: 효성중공업
 - 시기: 2024년 7월 11일 계약 체결
 - 계약 규모: 약 350억 원 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
- 내용
 - 효성중공업은 퀸즐랜드 내륙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동부 해안으로 운송하는 CopperString 2032 프로젝트의 핵심 장비인 변압기를 공급
 - 이 사업은 브리즈번 올림픽(2032년)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전환하려는 퀸즐랜드 주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
 - 효성은 이미 EnergyConnect 프로젝트에서도 전력기기를 공급하며, NSW 송전망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의 입지를 구축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이 사례는 한국 기반 기업이 호주의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확장 전략(IP 및 Rewiring the Nation)과 직접 연계된 대표적인 성공 모델
 - 효성중공업은 정밀 전력기기 및 인프라 분야(변압기, PCS 등)에서 호주 내 입지를 확장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로 분석
 - 향후는 BESS, 스마트그리드, 전력 변환 시스템 등 관련 기술 분야로 협업 영역 확장이 가능하며, 특히 변압기 공급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연계 기술 진출전략이 유망

다. 프로젝트 II – 방산, 건설

□ (건설) 호주의 건설시장 확대로 찾아온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

- 호주의 인프라 부문 사업 수요 증가로 국내 건설기업에 기회 확대
 - 호주는 국경 개방과 이민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대부분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등에 집중되어 주요지역의 인구 집중화와 교통체증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
 - 도심 사회간접자본 사업수요가 증가하며 교통,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관련된 대규모 민관합작 투자사업(PPP) 발주 확대
 - GS건설은 2021년 10월 멜버른 북동부 외곽순환도로와 동부 도로를 연결하는 호주 NEL(North East Link) 도로공사 수주에 성공하며 2024년 7월 착수
 - 해당 프로젝트는 빅토리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로 인프라 사업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GS건설, 삼성물산, HD현대중공업, 롯데건설, 동아건설산업, 포스코이앤씨 등 한국 건설기업 다수 진출

□ (방산) 호주의 방산 첨단화를 위한 투자 확대, 양국 방산 협력 강화 기회

- 자주포와 장갑차 수주 성공으로 구축된 양국의 전략적 방산 협력 관계
 - 2020년 3월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화디펜스가 K-9(현츠맨 AS-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하고, 2023년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AS-21) 장갑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방산업체의 對호주 두 번째 지상 장비 수출에 성공
 - 2024년 8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빅토리아주 소재 질롱(Geelong)에 자주포·장갑차 생산 공장 'H-ACE'를 완공하며 호주 내 생산 거점을 조성
 - * 해당 공장은 국내 방산업체의 첫 해외 생산공장으로, 향후 이뤄질 호주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 수주까지 고려하여 설계됨
 - * 현재 EMI/EMC 챔버, 폐쇄형 사격 터널, 추가 생산 공간과 지원 서비스를 수용 가능한 H-ACE Stage 2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완공 예정
- 호주 국방 전시회 참가를 통한 G2B 협력 방안 논의 및 현지 기업과 MOU 체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2025년 3월 멜버른에서 열린 공군 방산 전시회 'Avalon Airshow 2025'에 통합 전시관을 운영해 군 위성 통신기술을 접목한 종합 방산 솔루션 및 호주 현지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MOU 체결
 - * L-SAM 요격 미사일,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 5G 및 저궤도(LEO) 위성 통신 기반 차세대 통신 시스템 등의 방산 제품을 전시
 - * 전시관과 질롱(Geelong)시 레드백 생산공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Tigon 유인 장갑차, 무인 지상차 (U-GV), 드론 연계 시스템(Manned–Unmanned Teaming, MUM-T) 등을 시연

라. 공급망(자원개발)

□ 핵심광물 장기공급계약 및 호주의 한국 가공 시설 분야 투자 증가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호주의 광산개발 프로젝트 투자 참여, 관련 기업 지분 인수 시도
 - * 국내기업 L사의 호주 Liotontown과 수산화리튬 장기공급계약, P사의 Pilbara와 스포듀민(리튬의 원물) 장기 공급계약 등
- 호주산 원물을 정제, 제련하는 한국의 가공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 확대
 - * 2025년 상반기, ASM사는 충북 오창의 희토류 제련 시설에, Pilbara Minerals사는 광양의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에 증액투자

□ 핵심광물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한국 기업 진출 기회 존재

- 2024/25년 연방 예산을 통해 호주 핵심광물 프로젝트 및 인프라 지원 확대
 - 호주 정부는 호주의 지질학적 매장량과 잠재력,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등 주요 협력국들의 세계적인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31개의 핵심광물을 선정
 - 호주에 매장된 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투자 확대 기조

핵심 광물 관련 호주 정부의 투자 동향

구분	내용	규모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 (Critical Minerals Strategic Reser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비축량 구축, 호주 내 광물 탐사 및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억 호주달러(8억 달러) 예산 중 10억 호주달러(7억 달러)는 광물지원기금에 추가 	12억 호주달러 (8억 달러)
광물지원기금 (Critical Minerals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핵심광물 전략 및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40억 호주달러(26억 달러)에서 전략비축제도 구축에 따른 추가 배정금 반영 	50억 호주달러 (33억 달러)
북부호주인프라기금 (NAI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준주, 퀸즐랜드 및 서호주에서 프로젝트 자금 지원 	50억 호주달러 (33억 달러)
국가 재건 기금 (N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광물 가공, 정제 기술 지원 	최대 10억 호주달러 (7억 달러)
주니어 광물 탐사 인센티브 (JM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필드 탐사를 수행하는 소규모 탐사 회사에 대한 투자 장려 	-
핵심 광물 국가 생산성 이니셔티브(CMN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광물 인프라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개발 지원 	1,020만 호주달러 (665만 달러)

구분	내용	규모
주요 프로젝트 촉진 기관 (MPFA)	• 2,000만 호주달러(1,304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 지원, 규정 및 승인 정보 제공, 규제 기관과 소통	-
핵심 광물 생산 세금 인센티브 (CMiPTI)	• 31개 핵심광물에 대해 처리 및 정제 비용의 10% 인센티브 제공, 2030년까지 최종 투자 결정 프로젝트에 대해 2027~28년부터 2039~40년 사이의 생산에 최대 10년 동안 적용	70억 호주달러 (46억 달러)

자료: Austrade

- 세계적 생산국 도약을 위한 가공 역량 강화
 - 호주는 채굴과 1차 생산 단계에서 벗어나, 가공·제련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산업 밸류 체인 상위 단계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 동시에 정제·분리 등 첨단 가공기술을 적극 도입해, 단순 원자재 공급국을 넘어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을 모색
- 호주 핵심광물 개발 동향
 - 2025년 4월 호주 무역 투자대표부(Austrade)는 호주 핵심광물 투자 안내서(Australian Critical Minerals Prospectus)를 통해 다양한 핵심광물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49개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
 - 2025년 8월 기준, 현재 호주에서는 총 3개의 핵심광물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며, 2개는 건설 전 단계, 27개는 타당성 조사 단계, 16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이며, 1개는 관리 및 유지보수 중

호주 핵심광물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업	자원	단계	지역
Arrowsmith North Silica Sand	VRX Silica Ltd	Silicon	타당성 조사	WA
Australian Vanadium Project	Australian Vanadium Ltd	Vanadium	타당성 조사	WA
Avonbank	WIM Resource Pty Ltd	Rare Earth Elements, Titanium, Zirconium	예비 타당성 조사	VIC
Battery Anode Material Project	Rensacore Resources Ltd	Graphite	예비 타당성 조사	SA
Behrara	Perpetual Resources Ltd	Silicon	예비 타당성 조사	WA
Broken Hill Cobalt Project & Kwinana Cobalt Refinery	Cobalt Blue Holdings Ltd	Cobalt, Nickel	예비 타당성 조사	NSW
Browns Range Heavy Rare Earths	Northern Minerals Ltd	Rare Earth Elements	타당성 조사	WA
Burra Scandium Project	Rio Tinto Ltd	Cobalt, Scandium, Nickel	타당성 조사	NSW

프로젝트	기업	자원	단계	지역
Butcherbird High Purity Manganese	Element 25 Ltd	Manganese, Silicon	타당성 조사	WA
Cape Flattery Silica Sand	Diatreme Resources Ltd	Silicon	타당성 조사	QLD
Copi	RZ Resources Ltd	Rare Earth Elements, Titanium, Zirconium	타당성 조사	NSW
Cyclone	Diatreme Resources Ltd	Titanium, Zirconium, Hafnium	타당성 조사	WA
Donald Rare Earth and Mineral Sands	Astoron Corporation Ltd	Rare Earth Elements, Titanium, Zirconium	건설 전	VIC
Dubbo Project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 Ltd	Rare Earth Elements, Zirconium, Hafnium, Niobium	타당성 조사	NSW
Eneabba Rare Earths Refinery	Iluka Resources Ltd	Rare Earth Elements, Titanium, Zirconium	Construction	WA
Fingerboards	Gippsland Critical Minerals Ltd	Rare Earth Elements, Titanium, Zirconium	타당성 조사	VIC
Finniss	Core Lithium Ltd	Lithium	타당성 조사	NT
Goschen Rare Earths and Minerals Sands	VHM Ltd	Rare Earth Elements, Titanium, Zirconium	타당성 조사	VIC
Hillgrove Antimony and Gold	Larvotto Resources Ltd	Antimony, Tungsten	예비 타당성 조사	NSW
HPA First	Alpha HPA Ltd	High Purity Alumina	건설 중	QLD
HPA Project	Cadox Ltd	High Purity Alumina	타당성 조사	VIC
Kalgoorlie Nickel Project – Goongarrie Hub	Ardea Resources Ltd	Cobalt, Rare Earth Elements, Scandium, Nickel	예비 타당성 조사	WA
Kalkaroo	Havilah Resources Ltd	Cobalt, Molybdenum, Rare Earth Elements	예비 타당성 조사	SA
Kambalda Gold and Nickel Project	Lunnon Metals Ltd	Cobalt, Platinum Group Elements, Nickel, Palladium	예비 타당성 조사	WA
Karratha Magnesium Recovery Project	EcoMag Ltd	Magnesium	타당성 조사	WA
Kookaburra Graphite Project	Lincoln Minerals Ltd	Graphite	예비 타당성 조사	SA
Latrobe Magnesium Project	Latrobe Magnesium Ltd	Magnesium	건설 중	VIC
McIntosh Graphite Project	Green Critical Minerals Ltd, NH3 Clean Energy Ltd	Graphite	예비 타당성 조사	WA
Medcalf	Audalia Resources Ltd	Titanium, Vanadium	예비 타당성 조사	WA

프로젝트	기업	자원	단계	지역
Molyhil Tungsten	Thor Mining PLC, Investigator Resources Ltd	Molybdenum, Tungsten	타당성 조사	NT
Mt Carbine Tungsten Mine	EQ Resources Ltd	Tungsten	타당성 조사	QLD
Mt Mulgine	Tungsten Mining NL	Molybdenum, Tungsten	예비 타당성 조사	WA
Muchea Silica Sand	VRX Silica Ltd	Silicon	타당성 조사	WA
Munglinup	Mineral Commodities Ltd, Gold Terrace Pty Ltd	Graphite	타당성 조사	WA
NiWest	Alliance Nickel Ltd	Cobalt, Nickel	타당성 조사	WA
Nolans Rare Earths Project	Arafura Resources Ltd	Rare Earth Elements	예비 타당성 조사	NT
Nyngan Scandium	Scandium International Mining Corp.	Scandium	타당성 조사	NSW
Quantum Sunlands Eyre Peninsula Graphite Hub	Quantum Graphite Ltd	Graphite	타당성 조사	SA
Richmond – Julia Creek Vanadium	Richmond Vanadium Technology Ltd	Vanadium	예비 타당성 조사	QLD
Rover 1	Castile Resources Ltd	Cobalt	예비 타당성 조사	NT
Speewah Fluorite Project	Tivan Ltd	Fluorine	예비 타당성 조사	WA
Springdale Mine and Collie Graphite Processing Hub	International Graphite Ltd	Graphite	예비 타당성 조사	WA
Sunrise Battery Materials Complex	Sunrise Energy Metals Ltd	Cobalt, Scandium, Nickel	타당성 조사	NSW
Vecco Critical Minerals Project	Vecco Group Ltd	High Purity Alumina, Molybdenum, Vanadium	예비 타당성 조사	QLD
Victory Bore	Surefire Resources NL	Titanium, Vanadium	예비 타당성 조사	WA
Winchester	Korab Resources Ltd	Magnesium	타당성 조사	NT
Windimurra	Atlantic Pty Ltd	Vanadium	관리 및 유지보수	WA
Wingellina	Nico Resources Ltd	Cobalt, Nickel	예비 타당성 조사	WA
Yangibana Rare Earths & Niobium Project	Hastings Technology Metals Ltd	Rare Earth Elements, Niobium	건설 전	WA

자료: Austrade(Australian Critical Minerals Prospectus)(2025.8)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66 |
| 2. 진출전략 | 68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202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
- 중국은 최대 교역국으로 관계가 개선 중인 한편, 호주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한국, 일본, 인도, 아세안, 유럽 등과 교역 다변화 추진
- 미국은 호주의 3위 교역국이나 보호무역 강화로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에 고율 관세 부과, 호주는 교역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 2025년 7월, 호주-영국은 AUKUS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50년 조약 체결



경제(Economic)

- 2025년은 고금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성장세가 제한되었으나, 2026년에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리 인하, 소비 회복으로 점진적 회복이 예상
- 호주의 2025년 1분기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 반면, 임대, 고용, 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 부문은 증가
- 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는 0.7% 증가해 GDP 성장에 0.1% 기여, 주택·비주택 건설은 증가했으나 기계·장비 투자는 감소
- 2025년 호주 가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 지속, 2026년에는 실질임금 상승, 고용 안정, 금리 인하 등 요인에 힘입어 점진 회복될 것으로 예상



사회문화(Social)

- 최근 이민자 유입이 지속 증가하며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이 2024년 기준 31.5%로 상승
- 이민자의 문화·언어·소비 패턴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식품·외식,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
- 호주 이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며, 세대별 소비 성향 차이와 신뢰·편의 중심의 문화 속에서 밀레니얼과 X세대를 중심으로 성장
- 호주 소비자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도 재활용·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며 지속가능성을 문화적 가치로 내재화



기술(Technological)

-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자원·첨단기술 분야 전반을 강화하는 'Future Made in Australia' 전략을 추진
- R&D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 및 투자 증진, 규제 및 가이던스 개발 주도
- 2024년 국가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 2030년까지 제조·물류·농업·방위 분야 로봇 활용 확대 추진
-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시범사업 지원도 확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네트워크(한-호 FTA, RCEP) 활용 시 관세 혜택 및 투자 안정성 확보 가능 첨단 제조·ICT·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의 에너지·광물자원 협업 여건 우수 품질·ESG 경영에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은 호주의 지속가능경영 중심 정책과 부합 한류 및 K-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 부문 진출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 등 경쟁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열위 호주 금융시장의 서구권 익숙도로 자금 조달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 자동차, 기전 등 특정 분야 외 서비스 분야 등은 인지도가 낮아 초기 진입 난항 지리, 언어, 문화적 차이로 시장 적응 및 핵심 파트너 구축에 시간 소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는 한국의 4위 교역 파트너로, 서양 시장 중 지리적 근접성과 적은 시차 이점 보유 호주의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은 공급망 협력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님 호주의 안정적인 정치 및 제도적 기반은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 조성 호주의 재생에너지·수소경제 등 신산업 육성 정책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인건비와 운영 비용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와 인증, 토지 및 원주민 허가 등 진출 제약 존재 넓은 국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약 2,700만 명)로 소비 시장의 한계 존재 상대적으로 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라 낮은 다운스트림 벤류체인 역량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배터리·반도체·ICT 기술 및 호주 자원 연계해 청정에너지·수소 공동사업 추진
- 인도·태평양 협력 기반 활용 방산·스마트 인프라 등반 진출
- 한류 확산·디지털 소비 트렌드와 한국의 ICT·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해 소비재·디지털 서비스 시장 진출 가속화

» **에너지·방산 분야 기술·자본 연계 통한 진출 기회 모색**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K-소비재를 프리미엄·친환경 브랜드로 포지셔닝, 중국산 저가 제품과 차별화
- 호주의 현지 제조, 부가가치 창출 산업 확대에 대응하여 현지 기술이전, 합작 투자 등의 방식으로 진출 고려

» **품질·ESG 기반 차별화 및 신뢰 확보**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의 외국기업 인센티브, 세제 감면 혜택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비용 감축
- 현지 로펌 및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복잡한 인허가·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프로젝트 지연, 지역사회 반발 리스크 최소화

» **정책금융·파트너십으로 보완하고 현지지원 제도 활용**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비용 구조 부담 높은 사업은 현지 파트너와 합작 또는 아웃소싱 모델 도입, 효율성 제고
- 인구 규모의 한계에 대응하여 고소득층 등 틈새시장에 집중하고, 호주 외 정책 자금 등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 약점을 보완

» **파트너십 기반의 비용 효율화 및 틈새시장 집중**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핵심 광물

- 리튬·니켈·희토류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 금융 지원과 공동 투자 모델을 결합해 광산 인프라 개발 및 한국 설비시설 확대 등 장기 파트너십을 강화

에너지 전환

- 한국의 전력·배터리 기술 역량을 적용해 송전망, ESS, 계측 장비 분야의 정부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
- 스마트 계량기·고효율 가전을 현지 유통망에 연계하여 B2C 시장 진출을 본격화

AI·로봇 기술

- AI·로봇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디지털 헬스 분야의 솔루션 공급과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
- 호주 산업환경에 특화된 생산성 향상 모델을 접목, 광산·농업 로보틱스 분야의 현지화·사업화를 추진

K-소비재

- 한류 브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K-푸드·뷰티 제품의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강화
- 지속가능 포장과 친환경 원료를 도입해 소비재 시장을 ESG 차별화 전략으로 공략

방위 산업

- 첨단 무기·ICT 기술을 접목한 무인기, C4ISR 분야의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을 추진
* C4ISR: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을 의미
- 호주 현지조달 정책을 반영하여 정비 분야의 합작 법인 설립과 현지화 생산을 확대

전략 ①**핵심광물 기반 공급망 협력 및 ESG·디지털 솔루션 진출 전략****전략 수립 배경****•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호주는 핵심광물 비축제도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추진하며, 광산 효율화·ESG 수요가 확대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은 ICT 기술력과 첨단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호주와 상호 보완적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현지 동향**• 글로벌 기술 변화와 핵심광물 전략**

- 호주는 불안정한 무역 환경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전략 비축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를 강화
- 이는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 경제 회복력과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핵심광물의 전략적 가치가 한층 부각

• 호주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시도

- 호주는 기존 채굴·1차 가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제련·정제·가공 등 고부가가치 미드스트림 산업으로 확장
- 배터리 중간재 및 최종 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며, 핵심광물은 재생에너지 생산·저장 산업과 밀접히 연계

□ 유망 품목**• 한-호 우선 협력 핵심광물**

- 한국의 첨단산업 수요가 높은 배터리 원료 등을 중심으로 호주와의 협력이 요구
- 희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한국 기업의 전략적 확보 필요성이 확대
- 한국은 배터리 중간재, 전력 기자재, 스마트 계량기·ESS 등 첨단 제조 기술 기반 제품을 호주에 공급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 형성이 가능

• 광산 효율화·지속가능 경영 수요 확대

- 호주는 전략 광물 주요 생산국으로, 단순 채굴을 넘어 광산 운영 효율성 제고와 ESG 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이에 광산 운영 효율화 솔루션(자동화 시스템, 생산성 모니터링, 비용 절감 분석 등)과 ESG 기반 공급망 관리 서비스(탄소배출 추적, 윤리적 조달,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수요가 확대

- 한국 기업은 ICT 기술력과 친환경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호주 광산기업과의 협력형 서비스 진출 기회 확보가 가능

□ 진출전략

- 파트너십 기반 현지화
 - 호주 주요 광산 기업 및 관련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합작투자(JV) 형태로 진출
 - 광산 운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 현지화로 사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금융·투자 결합형 광산 협력 모델 구축
 - 한국 기업은 금융 지원과 공동 투자 모델을 결합하여 호주 광산 인프라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
 - 이를 통해 단순 구매 관계를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핵심광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
- ESG·디지털 기반 통합 솔루션 제공
 - ESG 보고, 탄소배출 관리, 지속가능성 평가를 디지털 플랫폼화하여 서비스 제공
 - 자동화 설비와 생산성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 장비를 ESG 공급망 관리 서비스와 결합한 통합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진출 모색

전략 ②**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프라·B2C 동반 진출 전략****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 호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프라 현대화 추진으로 송전망·ESS·스마트 계량기·친환경 가전 수요가 급증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은 전력·배터리 기술력과 소비재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와 B2C 시장에서 협력 기회 확보가 가능

□ 현지 동향

- 호주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
 - 호주는 2030년까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송전망 확충, 배터리 저장 인프라 구축이 동반 추진
- 호주 정부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송전망 강화가 필수 과제로 부상
 - 호주 정부는 전력망 현대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통해 고압 송전 기자재, 변전설비, ESS 등 핵심 장비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대
 -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가 주로 위치한 외곽지역에서 도시 중심부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규 송전망 설치와 노후 설비 교체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
- 정부 지원 기반 친환경 가전 시장 확대
 - 호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 이에 따라 가정용 스마트 계량기와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한 에너지 절감 수요가 급증
 - 연방 및 주정부가 스마트 계량기 보급 확대와 고효율 가전 교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장 성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과 ESG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친환경·저탄소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확대되며 관련 시장이 구조적으로 확대

□ 유망 품목

- 송전망 및 전력 기자재
 - 고압 송전 기자재, 변전설비, 보호 계전기, 전력 계측 시스템 등은 전력 인프라 현대화 및 안정화와 직결되는 분야
 -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와 정부 주도 대규모 사업에서 수요가 확대
- 에너지저장장치(ESS)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불안정 해소를 위해 ESS 구축 수요가 급증
 -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유망 품목으로 주목
- 스마트 계량기
 -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호주 전역에서 가정·상업용 스마트 계량기 도입 가속화
 - 전력 소비 최적화 및 요금 절감 솔루션과 결합해 진출 기회 확대
- 고효율 가전제품
 -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
 - B2C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이 경쟁력으로 작용

□ 진출전략

- EPC 컨소시엄 기반 인프라 시장 진출
 - 송전망·ESS·계측 장비 분야에서 호주 EPC 기업과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후 정부 입찰 참여
 -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기술 검증·시범 설치를 통해 신뢰도 확보
 - 한국산 기자재의 성능·안정성 인증을 현지 시험기관과 협력하여 조기 확보
- 스마트 계량기·고효율 가전 B2C 시장 공략 전략
 - 스마트 계량기·고효율 가전 제품을 호주 대형 리테일 체인(Coles, Woolworths 등) 및 온라인 플랫폼(Amazon AU 등)과 제휴해 공급
 - 현지 소비자 친환경 캠페인 및 프로모션을 통한 ESG 마케팅 전개
 - A/S센터 및 부품 공급망을 현지화해 사후관리 서비스 차별화
- 에너지 기업 및 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호주 주요 에너지 기업 및 대형 유통사와 합작투자 설립, 공동 마케팅, 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시장 기반을 구축
 - 설치·운영·A/S를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체계를 현지화하여 고객 신뢰를 확보
 - AEMO, Clean Energy Regulator 등 규제·정책 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마련해 인허가 절차,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

전략 ③ 호주 산업 맞춤형 AI·로보틱스 사업화 전략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호주는 숙련인력 부족과 고임금 구조로 전 산업에서 AI·로보틱스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부도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촉진 정책을 통해 관련 투자를 확대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기업은 ICT·제조기술 역량과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디지털 헬스, 광산·농업 로보틱스 등 검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지 맞춤형 기술과 파트너십 사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 현지 동향

- 호주의 AI·로봇기술 수요 확대

- 호주는 숙련인력 부족과 고임금 구조로 인해 전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AI·로봇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자동화 촉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확대
- 특히 스마트 팩토리·자율주행 물류 시스템·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등은 호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핵심기술 분야

- 주요 산업에서 로봇·AI 활용 증대

-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 AI 기반 진단, 디지털 헬스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확대, 정부의 예산 증대와 맞물려 첨단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AI 솔루션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강화
- 고위험 작업 대체를 위해 로보틱스·자율주행 운송 장비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며 광산 안전성과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술로 자리매김
-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스마트팜·자동화 온실·로봇 수확기 도입이 증가, 데이터 기반 농업 및 AI 활용 솔루션이 현지 수요를 견인

□ 유망 품목

-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설비

- 고비용 인력 구조의 호주 제조업은 생산 효율성과 품질관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이에 따라 AI 기반 생산관리·품질검사·예측 유지보수 솔루션의 수요가 확대
- 자동화 장비와 센서는 제조 현장의 품질 개선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며, 한국 기업의 기술적 강점을 드러내는 주요 분야

- 물류 자동화 시스템
 - 이커머스 성장과 함께 물류 효율화 요구가 높아지며, AI 기반 물류 최적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운반 로봇, 자동 분류·패킹 시스템에 대한 수요 확대
 - 특히 호주의 지리적 특성과 인력난을 고려할 때, 물류 자동화 기술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

□ 진출전략

- ICT·제조 융합 역량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자동화 솔루션 공급
 - 한국 기업은 ICT와 제조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호주 제조·물류 기업에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
 - 현지 EPC 및 물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검증과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 공동 실증을 통한 솔루션 상용화 전략
 - 호주 병원 및 의료 기관과의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AI 진단, 원격의료 플랫폼, 의료 로봇의 적용을 확산
 - 실증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기반으로 상용화 단계로의 진입 기반을 마련
- 광산·농업 로보틱스 현지화 사업 추진
 - 호주 광산업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장비·드론 탐사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형 생산성 향상 모델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현지 수요 대응과 신뢰 기반을 확보
 - 농업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스마트팜 운영 기업과 연계해 자동화 온실·로봇 수확기·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시범 적용하고 호주 맞춤형 농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
- 현지 파트너십·R&D 협력 강화
 - 호주 대학·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AI·로보틱스 현지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 적응력을 강화
 - 또한 협작투자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과 생태계에 참여,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태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전략 ④

호주 내 K-소비재 성장과 한국 기업의 기회 확대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호주는 다문화 사회 확산과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로 K-푸드·뷰티·프랜차이즈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ESG와 친환경 트렌드가 결합되면서 K-소비재의 시장 성장세가 가속화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기업은 품질·안전성·트렌디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프리미엄·친환경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류 브랜드 파워와 온라인·대형 유통망을 통한 확장 가능성을 확보

□ 현지 동향

• 호주의 다문화 사회 확산

- 호주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대표적 다문화 국가로, 2024년 기준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이 31.5%에 달함
- 최근 이민자 유입 증가로 특히 아시아계 출신 인구가 빠르게 확대되며, 식품·외식·교육·주거 등 생활 전반에서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활재 수요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소비재 선호로 이어지고 있어, 현지 시장 구조를 다변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 K-소비재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

- 호주 내 아시아계 이민자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푸드, K-뷰티,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점진적으로 확대
- 한국제품은 품질·안전성·트렌디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저가의 중국 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갖춘 소비재로 자리매김

〈호주 대표 백화점 David Jones, 홈페이지 내 한국 화장품 전용 섹션 운영〉

The screenshot shows the David Jones website's homepage with a navigation bar at the top. Below the navigation, there is a promotional banner for 'Korean Beauty & Skin Care' featuring various Korean skincare products. The banner includes the text: 'Perfect the coveted glass-skin look with these innovative essentials'.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product images from brands like ANUA, BEAUTY OF JOSEON, BIODANCE, COSRX, D'ALBA, MEDICUBE, TIRTIR, TORRIDEN, and VT COSMETICS.

자료: David Jones

- 특히, 호주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올해 6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해 누적 수출은 1억 8,625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
- 온라인 유통망과 대형 리테일 체인 진출이 확대되며 K-소비자 전반의 시장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

□ 유망 품목

- K-소비자, 틈새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확대 기대
 - 아시아계 이민자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즉석식품, 건강식품, 스낵류, 주류 등 K-푸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며, 한식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용성이 확대
 - 치킨·떡볶이 등 한식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호주 주요 도시에 잇따라 진출하며, 한국 식문화가 외식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
 -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마케팅 효과로, K-소비자는 기존 틈새시장을 넘어 대형 리테일 체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류 유통망 확장이 가능
- K-뷰티, 호주 프리미엄 시장 내 입지 강화
 -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프랑스 등 기존 주요 경쟁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호주의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부상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
 - 혁신성과 고품질을 기반으로 한국 스킨케어·메이크업 제품이 호주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 특히 친환경 원료·비건 인증 화장품은 현지 ESG 소비 트렌드와 결합해 고속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진출전략

- 프리미엄·친환경 제품 현지화 전략
 - 호주 소비자가 중시하는 비건·내추럴·저자극 트렌드에 맞춰 K-뷰티는 비건 스킨케어 라인 확장, K-푸드는 저당·글루텐 프리·유기농 원료 제품을 출시
* 중국산 제품의 낮은 가격 대비 고품질 차별화 전략
 - 포장 단계에서 생분해성·재활용 포장재를 적용하고,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해 ESG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현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 아시아계 이민자뿐 아니라 호주 로컬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SNS·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 강화
 - 헬스·뷰티 박람회, 식품 박람회 등 현지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B2B 네트워크와 유통 채널 확대
 - ESG·친환경 소비 캠페인과 연계해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현지 소비자 신뢰 확보

전략 ⑤**호주 방산 첨단화와 한국 기업의 전략적 협력 기회****전략 수립 배경****•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호주는 오커스 동맹 강화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군수지원 및 장비 유지보수 분야 협력을 확대, 한국은 자주포·장갑차 수출 및 현지생산 거점을 통해 전략적 입지 확보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한국 기업은 ICT 융합 기술, 무인기·센서 등 특화 장비 경쟁력과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 현지화 생산·정비 참여, 공동개발·R&D 협력, 전시회·MOU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로 진출 기회를 확보

□ 현지 동향**• 오커스(AUKUS) 동맹 심화와 첨단 방위 협력 확대**

- 호주는 오커스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첨단 방위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
- 2025년 7월, 호주와 영국은 장관급 회담에서 오커스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50년 조약에 서명하며 동맹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함

• 국방예산 확대와 방산 협력 수요 증가

- 호주는 2025~26년 국방예산을 589억 8,870만 호주달러(384억 6,093만 달러, GDP 2.05%)로 증액했으며, 2034년까지 GDP 대비 2.33%까지 확대할 계획
- 이러한 장기적 투자 증가는 첨단 무기, ICT, 무인체계, 군수 유지·보수 분야 등에서 외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호 방산 협력 강화

- 2020년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현초맨 AS-9) 수출 성공,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AS-21) 계약 체결로 한국은 호주 지상 장비 시장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
- 2024년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Geelong)에 국내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공장 H-ACE를 준공, 자주포·장갑차 현지생산을 개시
- H-ACE는 향후 호주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염두에 둔 장기적 거점으로, 2026년 말 완공 예정인 Stage 2 공사를 통해 시험·생산 역량을 확장 중

□ 유망 품목

- 첨단 무기체계 및 ICT 기반 장비
 - 무인기(UAV),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 시스템 등은 호주가 중점적으로 개발·도입하려는 핵심 분야
 - 한국 기업은 전자 광학장비, 레이더, 사이버보안 솔루션 등 ICT 융합 기술을 강점으로 보유
- 장비 정비·보수 및 현지화 생산
 - 호주 정부의 현지조달 강화 기조로 장갑차, 자주포 등 주요 장비의 유지·보수와 운영, 그리고 부품의 현지생산 수요가 확대될 전망
 - 한국은 축적된 정비 역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합작 법인 설립 및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주 방산 공급망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진출전략

- 현지화 생산·정비 네트워크 참여
 - 한국 중소기업은 부품 납품과 군수지원, 장비 유지·보수 분야에서의 협력망 참여를 통해 호주 방산 산업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
 - 특히 차량 부품, 전자장비, 정밀 센서, 통신 모듈 등 세부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현지생산 및 정비 체계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화 기술 기반 틈새시장 공략
 - 우리 중소기업은 무인기·드론 시스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기업이 담당하지 않는 소형 장비·모듈 단위 공급이나 특수 환경 대응 장비 분야 역시 유망 시장으로 평가
- 현지 기업·기관과의 공동개발 파트너십
 - 호주 방산업체와의 합작투자 및 공동개발에 참여해 시스템 통합, 현지생산, 시험·평가 공동 수행 등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연구기관·대학과의 R&D 협력을 통해 AI·센서 현지화 기술을 개발, 조달 과정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 현지 전시회 참여, 기업 간 MOU를 통한 진출 기반 확대
 - Avalon Airshow, Land Forces Expo 등 호주 주요 방산 전시회 참가로 기술력 홍보 및 B2B 네트워크를 구축
 -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단계적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전기차

- 선정사유**
- 호주 전기차 시장은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 기록
 - 호주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9만 8,436대로 전년 대비 150% 증가, 2024년에는 11만 4,273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2024년 전기차는 호주 신차 판매의 9.7%를 차지해, 4년 전 1% 미만에서 크게 성장
 - 한편, 호주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인 이동 수단과 운영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경쟁동향**
- 2024년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브랜드는 테슬라(Tesla)로, 총 3만 8,347대의 전기차를 판매
 -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테슬라는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하락세 진입
 -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은 2024년 1~3분기 기준 Tesla Model Y가 1만 6,697대로 가장 많으며, 이어 Tesla Model 3, BYD Seal, BYD Atto 3 순
 - 한국산 모델은 기아의 EV6가 13위, 현대의 Kona가 16위를 기록하며 호주 시장에서의 입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 진출방안**
- 충전 인프라 부족이 소비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충전소 설치 기업 및 전력 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관련 인프라 시장 진출을 모색
 - 호주의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외 지역까지 AS 서비스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 중국산 저가 모델의 확산에 대응해, 중·고가 시장(프리미엄 및 가성비 중형차급)을 집중 공략

김치

- 선정사유**
- 한류 문화 확산, 건강식품 관심 증가, 현지생산 확대 등 복합적 요인으로 호주 내 김치 수요가 빠르게 증가
 - 김치는 ‘발효’가 곁들여진 웰빙 식품으로 인식되며, 저열량 및 장 건강에 좋은 제품으로 저변이 확대
 - 호주 로컬 카페에서는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김치 활용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김치 맛 라면, 김치찌개 키트 등 다양한 김치 관련 상품들이 인기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 기업인 종가와 비비고가 로컬 대형 유통망에 진출했으며, 100% 한국산 김치를 수입해 유통하는 'The Kimchi Company'가 빠르게 성장호주의 김치 및 보존 처리된 채소 제품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24년 29.4%의 점유율을 기록2024년 기준 한국은對호주 수출 4위 국가로, 해당 품목 호주 수입시장의 7.8%를 차지,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800만 달러 기록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생과 품질 문제에 민감한 호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 '한국산 정통 발효' 또는 '비건/유기농/무첨가' 등의 키워드로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호주 소비자의 입맛과 식문화에 맞춰 덜 매운 김치와 샐러드·샌드위치용 소용량 제품 등 다양한 라인업 확장이 필요한식 레스토랑, K-팝 드라마 연계 행사 등 통해 김치를 한국 문화 아이콘으로 포지셔닝하고, 현지 소비자의 친숙도를 높이는 홍보 전략 추진

헤어 케어 제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팬데믹 이후 개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제조된 헤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미용 목적을 넘어 피부 관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는 스피니케어 트렌드 확산, 모발 관리 및 치료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4년 호주의 헤어 케어 제품 수입 규모는 약 2억 2,574만 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미국을 제외한 동 품목 호주 수입 상위 10개국 모두 전년 대비 对호주 수출 증가, 한국도 소폭 성장한편, 호주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헤어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이며, 해외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찾는 경향이 확대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발 개선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에 따라 효과적 기능성과 차별화된 효능을 강조한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 필요윤리적 소비와 친환경적 생산 방식에 대한 관심 확대, 이에 따라 비건 인증, 동물실험 배제, 친환경 원료 사용 등 가치 지향적 요소를 제품 전략에 포함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브랜드는 향, 가격, 효과 등에서 독창적 특징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

기초화장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내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지속 증가세 • 2024년 한국에서 호주로의 기초화장품 수입액은 1억 3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6% 증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전체 수입 규모 3위를 기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우수한 성분을 강조 • 동시에 가격경쟁력과 접근성을 강조한 대중 브랜드들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현지에서 한국 브랜드는 예방과 보호를 중심 철학으로, 저자극 케어, K-뷰티 루틴, 고품질과 합리적 가격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와 K-콘텐츠를 활용하여, 비포·애프터 영상이나 스킨케어 튜토리얼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활동 전개 • 호주 바이어들은 짧은 리드타임과 낮은 최소 주문 수량 선호하며 바이어와의 신뢰 형성이 중요 • 호주의 주요 소비 키워드인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필요 |

주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는 세계적으로 주류 소비가 높은 국가로서, 2025년 호주의 주류시장은 552억 2,900만 호주 달러(360억 958만 달러), 2029년에는 680억 2,100만 호주달러(443억 5,00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국산 주류의 호주 수입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K-주류(막걸리, 소주, 전통주 등)에 대한 현지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호주 주류시장의 품목별 점유율은 맥주(30.6%), 와인(29.4%), 증류주(22.7%), RTD(15%) 순 • 호주로의 주류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미국 순이며, 한국은 전체 수입국 중 13위를 기록 • 소주의 호주 내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5.1% 성장 전망 • 위스키는 증류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활비 부담, 라이트 라이프스타일, 웰빙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주류시장에서 소비세 적용 시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 전략과 효율적 유통 경로 확보가 필수적 • 한국 고급 주류는 현지 인지도가 낮아, 현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 •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저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제품을 선보여, 주류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 필요 |

스마트 농업 센서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는 농업 강국이나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산력 향상 요구 등으로 농업 분야의 첨단화 필요성이 대두• 호주의 광활한 농지와 외곽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농업과 원격관리 기술이 큰 주목을 받음• 토양·기상·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센서는 농업 효율화와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농업 센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실내용(온실, 시설재배)과 실외용(노지, 목축)으로 구분• 호주에서는 일부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체 제작 및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나, 독일·미국의 고성능 제품, 중국·멕시코의 가격경쟁력 보유 제품 등 다양한 수입품이 시장을 차지• 최근에는 단순 센서 공급을 넘어,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나 농업 관리 소프트웨어와 통합하여 데이터 분석과 농업 의사결정 지원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 제품이 주목받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농업시장은 유통망 특성상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 단순 하드웨어 공급보다는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하여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원격 유지보수와 고객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 호주 농업계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탄소배출 절감, 자원 효율화를 강조하고, 정밀 관개, 비료 사용 최적화 등 환경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이커머스

- 선정사유**
- 2024년 호주 이커머스 시장은 전년 대비 12% 성장해 약 690억 호주달러(약 45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습관이 일상화되면서, 식품·패션·가전·뷰티 등 전 산업군에서 이커머스 이용률이 상승
 - 높은 구매력·디지털 친화적 소비자·정부 지원 정책·물류 효율성 개선 필요성이 맞물리며 호주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
- 경쟁동향**
- 2024년 호주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의 시장 주도력 강화로 분석
 - 특히 아마존(Amazon)은 호주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
 - 한편,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 기존 글로벌 플랫폼뿐만 아니라, 테무(Temu), 쉬인(Shein) 등 신흥 해외 기반 온라인 전용 플랫폼의 급부상으로 마켓플레이스 간 경쟁이 본격화
 - 중국계 온라인 쇼핑 채널 테무(Temu)와 쉬인(Shein)은 저가 중심의 가격 전략을 앞세워 빠르게 소비자 기반을 확보
- 진출방안**
- AR·AI 기술을 활용한 물입형 쇼핑 경험과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
 -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간편한 반품 절차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재구매율과 브랜드 충성도 증진에 기여
 - 디지털기술 도입과 함께 호주 소비자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유연한 전략을 통해 시장 적응력과 진출 성과를 극대화

물류

- 선정사유**
- 호주는 생산성 정체와 임금 하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
 - 특히, 광활한 국토와 분산된 인구 구조로 인해 효율적인 물류망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현재 호주에서는 서부 시드니 국제공항, 멜버른 공항 철도 등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물류·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 중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마존 호주는 자동화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물류 효율성 혁신을 선도• Coles와 Woolworths 등 호주 주요 유통 대기업은 AI·자동화 기반 유통센터 확충으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국적 기업들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IKEA는 100% 재생에너지 활용과 친환경 운송 체계 전환을 적극 추진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MR(자율이동로봇), AGV(무인운반차량), IoT 기반 재고 관리, 빅데이터 수요 예측 등 스마트 물류 기술 수출 기회 모색• 친환경 물류 수요 확대에 대응해, 수소연료 트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 효율적 물류센터 설계 등 지속가능 물류 분야 진출이 가능• 공항·철도·항만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존 토목 사업에 스마트화·자동화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

대규모 배터리 저장시스템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규모 전력 저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전력망 안정화, 피크 수요 대응,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5년 7월, 국가전력시장(NEM) 내 배터리 출력이 사상 최초 2GW 돌파, 불과 2년 만에 4배 성장하였고, 정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82% 달성을 목표와 함께 대규모 BESS 프로젝트가 연이어 승인·건설 중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말 기준, 호주 내 38개의 대형 BESS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며 총용량은 약 8.7GW / 23.3GWh로, 2022년(1.4GW / 2GWh) 대비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현지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과 호주 에너지 기업의 합작 형태가 많으며, Trinsolar, Tesla, Zen Energy, Epic Energy, NEON, Equis 등이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 2024년 기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은 중국, 미국, 베트남, 한국 순으로 특히 중국산 배터리가 48.5%를 차지하며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 한국산 배터리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기업과의 JV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프로젝트 입찰 경쟁력 확보• 현지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담당자 및 EPC 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재생에너지 존(Renewable Energy Zone, REZ) 프로젝트 및 용량 투자 입찰(Capacity Investment Scheme, CIS)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참여

한식 프랜차이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푸드 및 K-컬처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한식 프랜차이즈에 대한 현지 인지도와 관심이 상승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재료, 저자극 조리법 등 한식의 특성이 웰빙과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호주 소비자에게 매력적임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기준 호주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약 1,234개, 개별 매장은 약 92,544개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1.5% 증가가 예상됨 • 현지 한식 프랜차이즈는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Korean BBQ, 불고기, 비빔밥, 치킨, 떡볶이 등 인기 메뉴를 중심으로 한 체인점이 증가 • 최근에는 배달과 테이크아웃 서비스, SNS 마케팅, K-콘텐츠 활용 프로모션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사례가 증가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초기에는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대도시 내 한국 교민 및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매장을 개설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한 후 점차 로컬 호주 시장으로 확장 • 호주는 자국산 제품 선호 경향이 강하므로, 현지 문화와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출전략과 마케팅 방향 설정이 필요 • 단순 수출형 프랜차이즈 모델보다는 현지 파트너와 장기적 상생 비전을 공유하고, 운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시장 진입 및 성장 전략 추진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호주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	호주 국립박물관 연계 한류 소비재 사업	1~5월 / 캔버라
경제협력	호주 Austrade 정례협의회 개최	3월 / 시드니
유통망	호주 유통망 연계 입점 및 판촉 사업	연중 / 시드니
유통망	한류 연계 호주 유통망 입점·판촉사업	9~10월 / 멜버른·애들레이드
스마트팜	호주 스마트팜 진출 로드쇼	연중 / 멜버른
프랜차이즈	호주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지원사업	연중 / 멜버른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년 남호주 주(州) 선거	03월 21일	
2025년 빅토리아 주(州) 선거	11월 28일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의무적 합병 통제 제도 시행 (Mandatory Merger Control Regime)	01월 01일	2025년 7월 1일부 전환 규정 (transition provisions)이 적용
2026년 금리 결정	연중	연간 8회 발표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
2026/27년 연방 예산안 발표	5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생활용품 전시회 (Life Instyle Sydney 2026)	02월 14~17일	시드니
선물용품 박람회 (Reed Gift Fairs Sydney 2026)	02월 14~17일	시드니
시드니 건축 박람회 (Sydney Build Expo 2026)	04월 29~30일	시드니
스마트 에너지 엑스포 (Smart Energy Expo 2026)	05월 06~07일	시드니
호주 제조 산업 전시회 (National Manufacturing Week 2026)	05월 12~14일	브리즈번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호주 의료기기 박람회 (AusMedtech 2026)	05월 19~21일	퍼스
시드니 프랜차이즈 엑스포 (Franchising Expo Sydney 2026)	05월 24~25일	시드니
외식 및 푸드 서비스 전시회 (The Restaurant & Foodservice Show 2026)	05월 25~27일	시드니
장애인 산업 전시회 (Sydney Disability Connection Expo 2026)	06월 12~13일	시드니
호주 운송 장비 및 기술 전시회 (CeMAT Australia 2025)	06월 23~25일	멜버른
호주 풍력에너지 전시회 (Australia Wind Energy 2026)	07월 08~09일	멜버른
호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전시회 (REGEN 2026)	07월 22~23일	시드니
시드니 보트쇼 (Sydney Boat Show 2026)	07월 30일~08월 02일	시드니
호주 뷔티 엑스포 (Beauty Expo Australia 2026)	08월 15~16일	시드니
호주 식품 전시회 (Fine Food Australia 2026)	9월(날짜미정)	멜버른
보안 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Security Exhibition and Conference 2026)	09월 02~04일	시드니
국제 광업 및 자원 컨퍼런스 & 엑스포 (International Mining and Resources Conference & Expo(IMARC) 2026)	10월 27~29일	시드니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조한하나	과장	시드니무역관	+61 (0)2 8233 0411	onlyone@kotra.or.kr
2	전희정	과장	시드니무역관	+61 (0)2 8233 4021	helen@kotra.or.kr
3	정현서	과장	멜버른무역관	+61 (0)3 9860 0502	hs.jung@kotra.or.kr
4	조미영	대리	멜버른무역관	+61 (0)3 9860 0509	lena818.cho@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호주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46-1 (95320)